이천이십오년 | 봄호(통권 26호)
www.gyeoremal.or.kr

겨레말

| 겨레말 초대석 | 조남호 남측편찬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만나 같이 회의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 기획특집 | 겨레말큰사전과 공동회의 20주년

공동회의, 특별한 상징에 대하여

남녘말 북녘말

다른 듯, 다르지 않은 남북 언어



목차

겨레말 | 이천이십오년 | 봄호(통권 26호)









02 겨레의 창
우리는 한배를 탔다 · 도종환

06 겨레말 초대석
조남호 남측편찬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만나 같이 회의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12 심상
세상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봄을 맞이한다 · 강건모

기획특집 | **겨레말큰사전과 공동회의 20주년**

16 **공동회의, 특별한 상징에 대하여**

18 칼럼 1 · 민현식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역사적 사명

22 칼럼 2 · 권재일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 겨레말큰사전 공동회의 20돌을 맞이하여

26 칼럼 3 · 전영선
'말[言] 문(門)은 열어야': 남북 언어 분단과 겨레말

30 칼럼 4 · 이경우
통일로 가는 디딤돌 《겨레말큰사전》 만들기 20년

34 사진기록관
한눈에 보는 《겨레말큰사전》 공동회의 20년

38 남측편찬위원회
공동회의 재개를 희망하며

일러두기 | 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사업회'로, 남북공동편찬회의는 '공동회의'로 통일한다.
② 본지에 게재된 외부 필자의 견해는 사업회 입장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북 공동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여 민족어 보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최초로 공동 편찬하는 우리말 사전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사업회 홈페이지(gyeoremal.or.kr)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51


54


55

겨레말 탐구생활

40 남녘말 북녘말
다른 듯, 다르지 않은 남북 언어: '가마치'와 '누룽지'의 추억 · 조현정

44 뜻풀이 깁고 더하기
재주 · 주영훈

48 우리말 보물찾기
제주의 보물은 돌코롬ᄒᆞ다 · 현택훈

52 이 계절의 겨레말
꽃편지·개나리꽃나무·꽃샘잎샘·아름차다

54 겨레말 소식

56 겨레말 낱말 풀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시간

세상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봄을 맞이한다. 어떤 것은 빠르게, 어떤 것은 느리게. 그런데 봄이 와도 여전히 겨울에 머무는 듯한 것들도 있다. 다른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는 동안 어떤 가지에는 겨우내 붙어 있던 마른 잎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변화를 망설이는 듯한 그 잎처럼,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본문 14쪽)

글·사진 제공: 강건모

펴낸이 **민현식** 편집인 **모순영** 책임편집 **윤석정** 편집 **김미경** 교정 **홍서현** 펴낸날 **2025년 5월 1일**
펴낸곳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홈페이지 **http://www.gyeoremal.or.kr** 전자우편 **gyeoremal@gyeoremal.or.kr** 디자인 **해든디앤피** 인쇄 **(주)태광P&D**





우리는 한배를 탔다

글 **도종환** 시인







봄이 온다, 가을이 왔다

"우리 노래 많이 준비해 오셨죠?" 2018년 3월 31일 평양 순안 공항에 내렸을 때 현송월 단장은 웃으며 내게 이렇게 물었다.

갑작스런 질문에 북쪽 노래를 준비해 오지 않은 나는 "같이 상의 합시다." 이렇게 말하며 속으로는 걱정을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관현악단이 강릉과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할 때 계몽기 가요를 포함해 우리 노래 이십여 곡을 노래했다.

조용필, 최진희, 이선희, 윤도현, 강산에, 백지영, 레드벨벳…. 우리 쪽 가수 모두 자기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고 북쪽 노래를 준비한 가수는 없었다. 함께 아는 동요를 부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북에서는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다. 급하게 북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푸른 버드나무〉라는 노래를 골라 소녀시대 서현에게 준비를 요청했다. 멜로디도 복잡하지 않았고 노랫말도 좋았다. 많은 나무들이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며 올라가는데 버드나무만은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자란다는 노래였다. 첫 번째 공연에서



↑ 2018년 4월 3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우리는 하나' 남북예술단 합동공연에서 그룹 소녀시대의 서현이 북의 노래 〈푸른 버드나무〉를 부르고 있다.

전주가 나오면서 남쪽 가수 서현이 등장해 이 노래를 부르자 박수가 쏟아졌다.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남북 교류가 십 년 이상 끊어지면서 전에 알던 노래는 옛날 노래가 되었고 최근에 널리 부르는 북쪽 노래 중에 아는 노래가 없었다.

다행스러운 건 남쪽 가수들 공연에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직접 관람하는 것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쪽 노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백지영이 〈총 맞은 것처럼〉을 노래할 때 특히 많은 질문을 했다.

'구멍 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 잡아 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 어떻게 좀 해 줘 날 좀 치료해 줘 /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 총 맞은 것처럼'

이런 노랫말을 자막으로 무대에 크게 띄웠다. 고음으로 거침없이 부르는 창법도 북에서는 낯설거니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가사가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2층 관람석에서 공연을 보던 김 위원장은 저 가수가 남쪽에서는 어떤 가수냐, 어느 정도 급이냐, 이런 걸 물었다. 그러면서 "상당한 영향이 있겠는데요."라는 말을 했다. 남북이 교류를 확대하고 공연이 늘어나고 그러면 북쪽에 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심정을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공연 중에 남북의 여가수들이 〈얼굴〉이라는 노래를 함께 불렀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남북이 같이 부를 때 뭉클했다. 북쪽 가수들이 알고 있는 노래라서 같이 부를 수 있었다. 남북 음악 교류를 하면서 우리 쪽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공연 제목이 '봄이 온다'니 가을에는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북쪽 공연단이 내려와서 하는 공연을 다시

제안한 것이다. 우리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고 꼭 그렇게 하자고 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

그해 8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다. 이때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여자농구, 카누 등의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 참여했다. 카누는 급하게 단일팀을 구성해 충주 조정경기장에서 7월부터 연습을 했다. 북쪽 선수들이 진천 선수촌으로 내려와 합숙하며 충주에 가서 연습을 했다. 그해 여름은 지독히 더웠다.

훈련을 시작하는 첫날, 남북 단일팀 선수들 앞에서 나는 "우리는 한배를 탔습니다. 이제 함께 노 저어 갑시다, 평화를 향하여!"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북쪽 단장이 "잠깐"하고 외치더니 "번영을 향하여!"라고 덧붙이는 것이었다. 우리는 큰소리로 웃었다. 우리는 평화가 북쪽은 번영이 필요하다는 게 인사말에서 바로 묻어났다. 기분 좋게 출발하는 훈련이었다.

무더위 속에서 지독한 훈련이 끝나갈 때쯤 카누협회장에게 전화가 왔다. 잘하면 메달권 안에 들지도 모르겠다는 보고였다. 원래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메달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메달은 기대하지 않았던지라 나는 "괜찮다, 메달 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함께 훈련하고 한 팀이 되어 아시안게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큰 거니까 부담 갖지 말라."라고 했다. 그랬는데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다가 다시 연락이 왔다. 금메달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카누 용선 경기에서 진짜로 금메달을 딴 것이다. 정말 놀랐다. 국제 대회는 나라마다 성적이 나와 있고, 경기 때마다 팀별 성적이 나오고, 세계 랭킹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나가면서 대개 몇 위 정도 할 건지 예상을 한다. 그런데 메달권 밖에 있던 우리가 금메달을 딴 것이다. 남북이 합치면 이런 시너지가 나온다는 걸 멋지게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환호했고 남북은 얼싸안았다. 폭염 속에서 어려움을 참고 맹렬하게 연습해 준 선수들이 고마웠다. 특히 낯선 남쪽에 내려와 혹독한 훈련을 참아내고 금메달을 따준 북쪽 선수들이 고마웠다. 저녁에 북쪽 김일국 체육상 일행과 기분 좋게 술 한잔했다.

남북이 합치면 시너지가 난다

그해 칠월에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국제탁구연맹 주최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가 열렸다. 그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인 장우진·차효심 조가 혼합 복식 결승에서 중국을 3대 1로 이기고 우승한 일이 있었다. 그때도 이미 세계 랭킹이 공개되어 있어 메달을 따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중국을 꺾었다. 16강전이나 8강전에서도 중국팀, 홍콩팀을 꺾고 올라왔고, 결승에서 남쪽 장우진 선수가, 받을 수 없는 공도 펄펄 날아다니면서 받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남북이 합치면 이런 시너지가 난다는 걸 두 선수는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남북은 합치면 강하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준 경기였다. 우승이 확정되자 장우진, 차효심 두 선수가 뜨겁게 포옹했는데 보는 우리도 가슴이 뜨거웠다.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남북이 단일팀을 이루어 우승한 적이 있었다. 남쪽 현정화와 북쪽 리분희가 출전한 단일팀이 중국을 누르고 우승한 뒤 27년 만의 국제 대회 우승이었다. 유승민 IOC 위원(현 대한체육회장)이 주축이 되어 탁구인들 주도로 남북 단일팀을 만들었고 감동을 선물했다.

> 올림픽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된 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IOC의 평가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남북의 위기 상황을 올림픽으로 막아냈고, 남북이 문화 교류, 체육 교류를 하면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9.19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했으니, 올림픽이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남북이 다시 만나게 될 때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단일팀을 만들어 경기에 참여한 뒤에 남북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을 개최하자는 논의를 했다. 북쪽 IOC 위원이기도 한 김일국 체육상과 함께 논의했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도 상의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남북이 함께 찾아가서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내가 제안 설명도 했다. 국제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좋아했다.

올림픽의 목적은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다. 아테네 올림픽이 열리면 모든 폴리스는 전쟁을 멈추었다. 사람을 죽이던 창을 누가 멀리 던지나 겨루면서 경기를 했다. 백병전을 멈춘 대신 레슬링을 했다. 그게 올림픽의 시작이었다. 이긴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진 자는 박수를 보냈다. 올림픽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된 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IOC의 평가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남북의 위기 상황을 올림픽으로 막아냈고, 남북이 문화 교류, 체육 교류를 하면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9.19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했으니, 올림픽이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모든 것이 거기서 멈추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등장했으니 북미 협상은 재개될 것이다. 남북 관계는 다시 꿈틀거릴 것이다. 멈추었다 다시 이어졌다를 반복하면서 80년이 흘렀다. 그러나 남북이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역사의 진전을 이루어 냈고, 그것이 모여 결국 요동치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5천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라고 연설했듯 결국은 같이 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도종환

시인.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1984년 동인지 〈분단시대〉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접시꽃 당신』, 『부드러운 직선』, 『해인으로 가는 길』,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 『사월 바다』,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등이 있으며 정지용문학상, 윤동주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제19대(비례),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7년 제50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우리는 만나
같이 회의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지난 2월 20일, 명지대학교 종합관 8층 연구실에서 조남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 위원장(아래 '남측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2023년 2월 16일 제84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됐고, 이어 2월 22일 제55차 정기 이사회에서 위원장 인준을 받았다. 2005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아래 '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됐을 때 그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완간하고,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출발선에 서 있었다. 올해로 공동회의 20주년을 맞아, 국립국어원 편찬실장과 어문연구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리고 남측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의 여정을 따라가 봤다.

진행·정리 **윤석정** 겨레말큰사전 기획홍보부 부장
사진 **이효영** 사진작가





《겨레말》 독자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국립국어원에서 근무했고, 2014년 3월 이후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16일 남측편찬위원회 회의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이력이 특별할 게 없이 단순하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국어학 전공을 천직이라 여기며 살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인연을 맺은 계기가 궁금하다.

국립국어원에서 1999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완간할 때 편찬실장을 맡고 있었다. 사전을 만든 경험 때문에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는 일에도 참여하게 됐다. 2004년 금강산에서 남과 북이 사업을 위한 예비모임을 가졌을 때 본인을 비롯해 정도상, 홍윤표, 이상규, 이태영 등이 함께했다. 이후 국립국어원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글학회 등에서 일한 사전 편찬자와 문학인 등이 모여 남측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2005년에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편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국립국어원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했는데 당시 본인은 남측편찬위원이면서 국고보조금 집행자 역할도 맡아야 했다.

편찬사업 초창기 국립국어원의 도움이 컸으리라 본다.

편찬사업 초기에 국립국어원은 사전 편찬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사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북한 언어 자료, 말뭉치 등 국립국어원이 보유한 자원을 사업회에 제공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국책사업이면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바탕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 협조했다. 2006년 사업회가 출범하고 통일부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받게 되면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예산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았다.

위원장으로 2년을 보낸 소회와 올해 공동편찬위원회 결성과 공동회의 개최 20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혀달라.

지난 2년 동안 남측편찬위원회 회의를 두 번 개최했고 북측편찬위원을 만나지 못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소회가 있을 게 없다. 더욱이 편찬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전 편찬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겨레말큰사전》을 발간할 수 없을지는 몰랐다. 편찬사업 취지대로 남북이 협의해 사전을 펴내지 못했다는 점이 유감이고 공동회의가 개최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 유감이다.

'유감'이라는 단어에서 위원장으로서 책임감과 아쉬운 심경이 느껴진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 작업을 진행한다. 이 작업은 남과 북이 만나야만 완성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1988년 월북 작가 작품이 해금된 이후 북한 자료를 볼 수 있었고 북한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어에 관한 관심과 연구도 늘어났다. 자연스레 남북의 언어 차이와 이질화 심각성도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북한 자료와 책만으로 북한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얼음보숭이'는 북한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이다. 실제 사용하는 언어를 자료나 책으로만 확인한다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동회의는 남과 북의 언



어학자가 직접 교류하면서 실제 사용하는 언어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10년 전 제25차 공동회의 개최 이후 현재까지 공동회의가 중단돼 너무 아쉽다.

공동회의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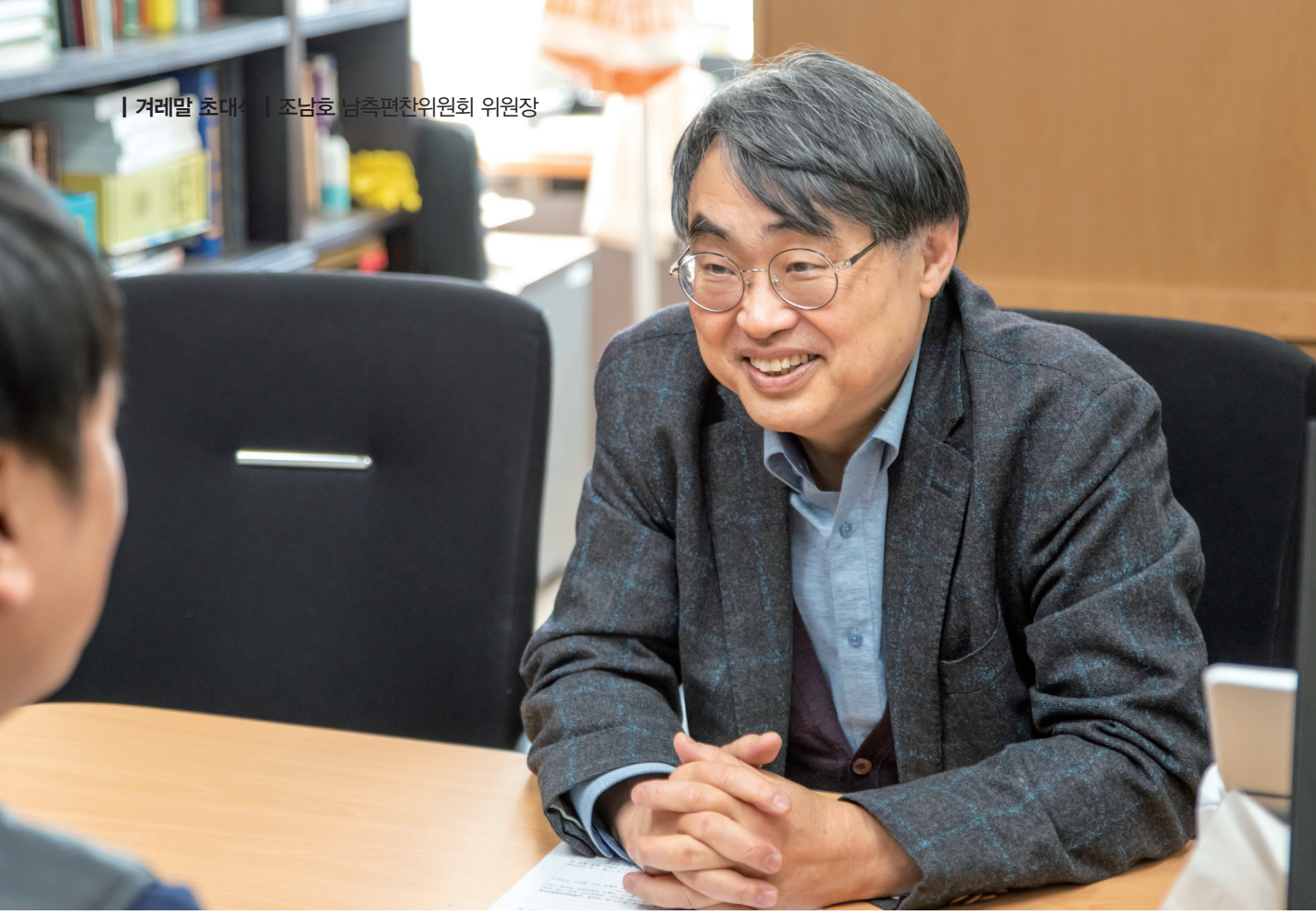
2004년 남북이 사전편찬의향서를 체결했고 남북 합의문에 따라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공동편찬위원회는 합의를 통해 공동편찬요강과 올림말 선정 작업 요강, 어휘 조사 작업 요강, 단일 어문 규범 작성 요강 등 세부 작업 요강을 작성했다. 공동편찬요강에서 밝혔듯《겨레말큰사전》편찬의 모든 과정이 남북의 공동 작업과 공동 심의·합의에 의해 이뤄진다. 예컨대 초창기 공동회의 과정에서 북측은 '싱크대'가 외래어라며 올림말에서 빼자고 했다. 남한은 싱크대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올림말에서 뺄 수 없어 북측을 이해시켜야 했다. 공동회의를 하면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문제가 되는 어휘들을 놓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서로 이견이 없으면 올림말 선정에 합의하고 서로 이견이 있으면 왜 문제가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한다. 서로 이견이 있는 단어 내용을 이해시킨 다음 합의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동회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겨레말큰사전》에는 어떤 단어들이 수록되는가?

《겨레말큰사전》은 기본적으로《표준국어대사전》과《조선말대사전》에 담긴 단어에서 올림말을 선정했고 남북, 해외동포의 문학어와 지역어를 채집 · 조사해 올림말로 수록한다.《겨레말큰사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사전 편찬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전은 규범적이다. 언어의 운명을 보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 미래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사전은 언어를 보존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상어도 규범에 맞게 수록한다. 나중에《겨레말큰사전》이 편찬되면 남북이 통일되거나, 혹 통일되지 않더라도 교류 현장에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만약 공동회의가 재개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북측편찬위원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북측편찬위원장이었던 문영호 선생님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정순기 선생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니 10년 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처음 금강산 공동회의에서 만났던 날 정순기 선생님은 본인에게《표준국어대사전》을 만든 편찬실장이 왜 이렇게 젊냐며 놀라워하셨다. 그때 이후 본인을 많이



아껴 주셨고 공동회의가 열릴 때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자주 있었다. 그가 학자로서 이룬 성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직 여쭐 게 많다. 우리는 스물다섯 번 북측편찬위원들과 만나 공동회의를 했고 같이 밥을 먹었다. 그때 회의하고 밥을 먹었던 북측편찬위원들이 모두 기억나고 다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당연히 다시 사전 원고 검토를 이어가고 싶다. 그런데 중단된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 다시 공동회의를 하게 된다면 검토에 앞서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이 모두 중대한 과업임을 잘 알고 있기에 남북에서 편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밥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식구가 연상된다. 기억에 남는 북측편찬위원들과의 식사가 있는가.

중국에서 공동회의를 개최하면 북한 식당과 남한 식당을 번갈아 찾아 식사한다. 한번은 남한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북측편찬위원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북한에서는 돼지고기는 주로 삶아 먹는다고 했다. 너무나 익숙해서 남북이 다를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던 것들조차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생각해 보면 식사 자리가 남북 소통의 상징적인 장소였다. 보통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는 공적인 말만 하고 쉬는 시간에도 서로 어울릴 수 없다. 남북의 편찬위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점심 혹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비로소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사적인 대화를 한다. 북한에서는 이렇고 남한에서는 저렇다면서 상호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힌다. 분단 이후 달라진 문화를 사석에서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사석에서 확인한 것들이 때로 원고에 반영되기도 한다.

2015년 이후 공동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위원장은 '지금은 사전 원고의 깊이를 더할 때'라고 표현했다.

사업회는 남북 언어에 있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 원고의 깊이를 더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1990년대 많은 연구자가 북한어를 활발히 연구했으나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제 사업회가 북한어 전문 기관으로서 역량을 축적하고 유지해야 한다. 내부 구성원들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에게 북한어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나 북한어 정보 등을 제공해 전문가 집단으로 각인시키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공동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사전 완간을 앞두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남측에서 단독으로 사전을 발간하기보다 공동회의 재개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동회의 재개를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다. 북한은 2023년 12월에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했고 남과 북은 두 개의 국가라고 선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마저도 지워나갔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태도가 바뀐 게 아닐까 싶다. 그러나 언젠가는 남북 교류가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묵묵히 편찬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교류를 시작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사정도 있기에 이제는 사전을 완간할 수밖에 없지만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사전을 발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겨레말》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거라고 예상했고 실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었고 남북 교류가 없다 보니 남북 언어 차이에 관한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북한과 등지고 살 수 없다. 언젠가 다시 남북 교류가 성사된다면 그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언어 문제를 편찬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독자들도 지금 당장 편찬사업을 왜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남북이 통일되거나 교류할 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업이 바로 편찬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성원을 부탁드린다.



세상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봄을 맞이한다

글 · 사진 **강건모** 에세이스트

발밑의 흙이 폭신하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며 신발 밑창에 촉촉한 감각이 전해진다. 마른풀 사이로 가느다란 초록이 얼굴을 내민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새 생명이 조용히 돋아나 있다. 아무도 모르게 대지를 뚫고 올라온 이 작은 존재가 경이롭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계절 하나가 지고 또 하나가 새롭게 눈을 틔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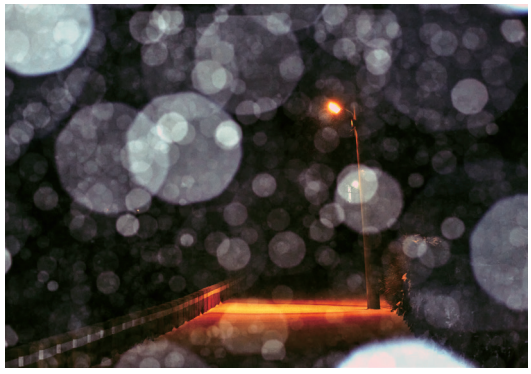
이즈음의 계절감은 혼자 길을 걸을 때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다. 바람 속에는 부드러운 기운이 섞여 있고, 아침저녁으로는 냉기가 감돈다. 하지만 길 위에서 마주하는 따스한 순간들 덕분에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온기를 머금는다. 햇살 아래 돌담에 기대어 서 있으면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은근한 따뜻함이 배어 나온다.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에도 새로운 계절이 스며 있음을 실감한다.

겨울의 기억이 떠오른다. 차가운 밤, 창밖에 조용히 내리던 눈.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눈송이는 소리 없이 쌓였고, 세상은 하얀 침묵에 덮였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폭신하게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새하얀 풍경 속에서 시간마저 느리게 흘러갔다. 그러나 지금, 그 하얀 기억은 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눈이 녹은 자리마다 새싹이 돋고, 얼었던 땅이 풀리며 생명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작은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푸른 새순들이 힘차게 숨을 내쉬고 있다. 투명한 비닐 너머로 연둣빛 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비록 겨울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어도, 생명의 흐름은 이미 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돌담 사이로 삐져나온 풀잎, 바람에 살랑이는



↑ 봄은 어디서 오는가. 돌담 너머 매화가 대답한다.



↑ 밤새 내린 눈이 온기의 틈에 스며들 때, 봄은 조용히 작은 길을 낸다.



↑ 생각하면 우린 모두 언젠가 비닐 속 연둣빛 식물들이었다.

나뭇가지, 가지 끝에 매달린 작은 꽃봉오리. 계절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곁을 찾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들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봄을 맞이한다. 어떤 것은 빠르게, 어떤 것은 느리게. 그런데 봄이 와도 여전히 겨울에 머무는 듯한 것들도 있다. 다른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는 동안 어떤 가지에는 겨우내 붙어 있던 마른 잎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변화를 망설이는 듯한 그 잎처럼,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최근에 나는 대학 은사님을 여의었다. 여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모를 잃은 것만큼이나 슬픔이 깊기 때문이다. 내 삶의 등불이자 다정한 친구 같았던 여든 살의 선생님. 다음 달에 제주에서 만나 꽃구경 하자 했는데, 꽃이 피기도 전에 가셨다. 그 때문인지 아둔한 내 머릿속에선 선생님이 가시고 봄이 온 것만 같다. 코끝에 닿는 매화 향기 속에 선생님의 빈자리가 선명하다.

그러나 봄은 잃어버린 마음을 보듬듯 다가온다. 언 땅이 녹고, 마른 가지 끝에 연둣빛 잎이 돋듯, 마음 한편에도 조용히 온기가 스민다. 따뜻한 햇살이 등을 감싸고, 돌담에 기대어 서면 봄바람이 가만히 위로해 주는 것 같다. 모든 생명이 각자의 속도로 봄을 맞이하듯, 나의 슬픔도 언젠가는 이 계절 속에서 부드럽게 스며들 것이다. 그렇게 계절은 흐르고, 우리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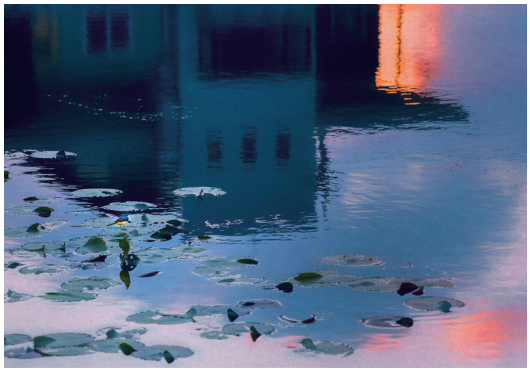
↑ 어떤 꽃은 서둘러 피고, 어떤 마음은 아직 멈춰 있다.



↑ 매화 향기 속에 빈자리가 선명하다.



↑ 노란 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 마음 어딘가도 조금은 그렇게 물든다.



↑ 작아지고 싶다. 봄은 작은 존재에게 가장 먼저 닿는 법이니까.



↑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 각자의 리듬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삶 아니겠나.

제주어로 '맨도롱 또똣'은 매지근하고 따뜻하다는 뜻이다. 찌는 듯한 더위나 강렬한 온기가 아니라, 은근하고도 부드러운 따스함. 봄의 온기는 바로 그런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발밑의 흙이, 나무들의 줄기가, 그리고 사람들의 손끝이 그 변화를 먼저 감지한다. 한 계절이 가고, 또 다른 계절이 오는 길목에서, 나는 그 변화를 담담히 맞이한다.

동네 저수지 가장자리에 가마우지 한 마리가 조용히 서 있다. 한쪽 다리를 물에 담근 채, 움직이지 않고 시간을 견딘다. 아직은 찬 기운이 감도는 물가에서, 녀석은 서두르지 않는다. 때가 오면 날아오를 것을 알기에, 묵묵히 자신의 순간을 기다린다. 봄이 오는 것도, 떠난 것들을 기억하는 일도, 그렇게 각자의 속도로 흘러갈 것을 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봄의 의지가 스며든다.



강건모

에세이스트, 문학 편집자, 사진가. 저서로 사진 에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산문집 『무탈한 하루』가 있고, 단편영화 〈바람작업실〉을 연출했다. 현재 제주에 살며 이야기가 피어나는 삶의 결정적 순간을 다양한 예술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

공동회의, 특별한 상징에 대하여

이번 기획특집의 주제는 '겨레말큰사전과 공동회의 20주년'이다. 공동회의는 2005년 2월 금강산에서 남과 북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아래 '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동회의는 2009년까지 매년 4회 만나 진행됐는데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중단됐다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잠시 재개되기도 했다. 서울(1회), 평양(6회), 개성(4회), 금강산(5회), 베이징(3회), 선양(5회), 다롄(1회) 등지에서 총 25차례 공동회의가 열렸으며,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공동회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사업회는 공동회의가 중단되면서 《겨레말큰사전》 원고의 질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북측분 집필 작업을 수행했고 북측과 신속하게 사전 발간을 협의하고자 2021년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제작했다. 또한 국민에게 편찬 성과를 공유하고 편찬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사업에 주력해 왔다.

제1차 공동회의 개최 후 20년 동안 남북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고 그러는 동안 남북이 금강산에서 맨 처음 약속한 《겨레말큰사전》 발간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공동회의 재개를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공동회의 20주년을 평가하고 기념해야 할까. 분명한 사실은 남북이 25차례 만나 사전 편찬에 대한 뜻을 한데 모았고 천천히 그 결실이 형체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그간의 공동회의를 조명하고, 회고하고자, 남북 언어 통합, 남북 문화 교류의 의미와 가치를 내·외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우선 본 사업회 민현식 이사장, 단일어문규범작성위원장과 남측 편찬위원장을 역임한 권재일 한글학회 이사장, 남북 문화 교류 전문가 전영선 건국대 교수, 서울신문 어문부장을 역임한 이경우 미디어언어연구소 소장 등을 모셨다.

민현식은 공동회의 20주년을 맞아 장기화된 공동회의 중단에도 비관적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겨레말큰사전》은 그런 '점진적 통합과 궁극적 통일'을 향한 한민족 언어 통합의 장정(長征)에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면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 정치·사회적 통일까지 이루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재일은 공동회의에 참여해 남북의 어문규범을 단일화한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남북의 언어학자가 서로 만나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통해 언어 통합을 실현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국토 통일에 앞서서 이런 언어 통합을 미리 준비해 둠으로써 어떠한 혼돈도 없이 효과적으로 남북이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다는 의미에서 《겨레말큰사전》은 그 가치가 따질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크다."라고 말했다.

전영선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해 남북이 하나가 되어 분단된 언어의 장벽을 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분단 8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남다른 것은 언어의 이질화는 곧 민족의 분열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이라며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단기적으로 끝날 일종의 사업이 아니라 지속하면서, 넓혀나가야 할 문화 소통의 문이자 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경우는 언론이 공동회의에 어떤 의미를 뒀는지 분석했다. 이를 통해 그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해 "사전 편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언론도 잘 안다"면서 "새로운 것을 담고 부족한 것을 기우는 작업을 쉼 없이 해 나가야 한다는 걸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회의는 남북 교류의 상징성도 지닌다."라며 "이 회의의 결과물인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드문 협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역사적 사명

글 **민현식** 겨레말큰사전 이사장

지난 2004년 3월 15일, 남측의 '통일맞이'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만나 '남북공동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향서'를 체결하고 《겨레말큰사전》으로 사전 명칭도 결정하였다.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제1기 남측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13일 공동편찬위원회가 금강산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드디어 이듬해 2005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남북편찬위원들이 모여 제1차 공동회의를 개최한 이래 올해 20주년을 맞게 되었다.

2006년 1월 23일에 남측 사업 주체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법인 설립이 인가되었다. 2007년 4월 27일에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법인격이 전환되었으며, 사업회는 명실공히 법정 기구로 국민이 부여한 사명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1)]

그동안 남북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25회 만나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공동회의를 열었으나 북핵 사태로 2016년부터는 공동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남측 단독으로 매년 1~2회씩 남측편찬위원회 회의를 열어 편찬사업을 점검하고 신년도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동편찬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그마저 끊어졌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항상 결정적 돌파구를 통해 위기를 넘겨온 경험들이 있어 당장의 비관적 전망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지속 보완이 가능한 사전

다행히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편찬위원회는 어려운 남북 및 국제 여건 속에서도 남북 어문규정의 차이점을 연구하고 표기법 통일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였으며,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30만 7,000여 개의 올림말(표제어)을 확정하고 집필 지침도 수립하여 상호 교열을 통해 10년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였다. 2016년부터 북

1) 사업회의 자세한 해살이(연혁)는 홈페이지의 '사업회 소개' 참고.

핵 사태로 상호교류가 중단된 후에는 남북 상호 집필과 교열의 경험을 토대로 미집필 원고에 대하여 집필을 완료하였고 교열 중에 있다. 언제든지 공동회의가 재개되면 그동안의 남북 집필 과정본으로서 지속 보완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2028년 4월까지는 남북 언어 정보 사전으로서 유용하게 쓰일《겨레말큰사전》1차 결과물을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웹사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지속 보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한류의 확산에 힘입어 한국어 사용자는 이제 남한 5,100만, 북한 2,500만, 해외 750만, 국내 이주민 260만에 이르고, 전 세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는 2022년 35만, 2023년 42만, 2024년 49만 명으로 늘어 최근 3년간 126만 명이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산업연수생,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한국어 학습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학습자만 수백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 겨레는 물론 해외동포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겨레말의 언어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어 사전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1991년부터 시작하여 1999년에 종이사전 편찬을 마친 51만 단어 규모의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1999, 종이사전; 2008 웹사전)과 전문어와 방언을 보강하여 100만 어휘를 바라보고 편찬한《우리말샘》(2016, 개방형사전)은 한국어 정보 집대성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통일 후를 위한 북한어 정보가 미흡하여 해외 한민족을 고려한 사전으로서도 새로운《겨레말큰사전》편찬은 이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 언어의 이질화 문제

남북 언어의 차이는 지리적 방언 차이에서 나타나는 지역어(지역방언)와 이념 체제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체제어(체제방언, 이념 체제어)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지역어 차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며 이질화의 내용으로 거론할 필요도 없다. 한국어 방언에서 남한의 동남방언(영남방언), 서남방언(호남방언), 제주방언, 충청방언, 경기방언이라든가, 북한의 서북방언(평안방언), 동북방언(함경방언)에서도 지역방언의 차이는 엄존하고 한국어의 하위 방언에 불과하여 개인차에 따라 일부 지역어가 알아듣기 어려워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지역어 사용자는 대부분 교육과 매체의 영향으로 중앙의 표준어도 구사하는 이중방언 사용자인 만큼 남북 지역어는 이질화나 언어 불통의 차이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 남북의 지역어 차이는 다른 지역어들 차이와 같은 지역어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언어의 이질화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은 대체로 체제어의 차이에 기인한다. 남북 체제의 이념적 차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의 언어가 달라지므로 우리는 이를 '체제어의 이질화'로 부르도록 하며, 체제어는 다시 ①이념어와 ②전문어 영역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사례에서 붙임표(-) 앞은 남한어, 뒤는 북한어이다.

① 이념어(이념 체제어): 대한민국-남조선. 한반도-조선반도. 대통령-국무위원장. 시청-시인민위원회. 주민등록증-공민증. 국회-최고인민회의. 국민-인민.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한글날-훈민정음 창제일. 스승의 날-교육절.

② 전문어(전문 체제어): [의료] 한약–동약·고려약. 치과–구강과. 늑막–가슴막.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거미줄막하출혈. 돌연사–갑작죽음. [경제] 환전–화폐교환. 수당–가급금. 통과무역–거침무역. 초과근무–과외로동. [건설] 건축공사비–건설총원가. 개폐기–여닫개. 보온성–따습성. 내화벽돌–불벽돌. [재무] 회계감사인–검증성원. 결산잉여금–결산리윤. [교통] 인도 · 보행로–걸음길. 육교–구름다리. 횡단보도–건늠길. [체육] 동계올림픽–겨울철올림픽. 매스게임–집단체조. 아이스하키–빙상호케이. [수학] 막대그래프–기둥도표. 코사인–코시누스. 두제곱근–두제곱뿌리. 정사각형–바른사각형. [교육] 볼펜–원주필. 멜로디언–입풍금. [정보] 데이터베이스–자료기지. 포맷–호마트. 인터페이스–결합장치. 기억소자–기억세포. [의류] 한복–조선옷. 니트–뜨개옷. [기타] 포장마차–막매대. 웨이터–접대원. [음식] 와플–구운빵지짐. 바게트–베개빵.

위에서 이들 이념어는 이념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전문어는 체제를 지탱하는 각 전문 영역을 기반으로 형성되면서 남북 전문용어가 달라진 경우이다. 특히 전문어는 언어정책에 따라 이념 체제어의 영향을 받기 쉬운데 북한의 경우에는 고유어 중심으로 순화어를 쓰는 '어휘정리사업'이 있어 왔다. 남한도 '국어순화사업'이 있어 왔기에 남북 특유의 언어정책이 작용하여 전문어의 이질화가 드러나는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 남북 언어의 이질화 문제는 일반어보다 특히 남북 전문어의 영역에서 심각할 것으로 보여 남북 언어정책에서 이 부문의 통합과 통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언어학자는 물론, 각 전문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점진적 통합과 궁극적 통일

다음으로 이질화 문제의 심각한 영역은 남북한의 표기 영역이라 하겠으니 다음은 표기법 불통일(不統一) 사례를 영역별로 간단히 예시한 것이다.

① 두음법칙 표기: 여자–녀자. 요소–뇨소. 이성–리성. 낙원–락원. 노동–로동. 예외–례외. 비율–비률
② 사잇소리 표기: 바닷가–바다가. 숫자–수자. 아랫니–아래이. 뒷문–뒤문. 숫양–수양.[2] 수캐–수개. 수키와–수기와
③ 어미 표기: 되어–되여. 도리어–도리여. 드디어–드디여. 고마워–고마워·고마와[3]
④ 접사 표기: 멧돼지–메돼지. 빛깔–빛갈. 일찍이–일찌기. 널찍하다–널직하다. 널따랗다–널다랗다 · 넓다랗다.
⑤ 외래어 표기: 헬멧–헬메트. 토픽–토피크. 버스–뻐스. 댐–땜. 캐비넷–까비네뜨. 트랙터–뜨락또르. 타입–타이프. 플래시–플라쉬. 초콜릿–초콜레트. 고딕–고지끄

2) 북한 《조선말대사전》(1992, 증보 2017)에서 사이시옷을 쓴 사례가 다음과 같이 있어 북한 규범도 일관성을 보이진 않는다: 갓길, 갯버들, 갯보리, 상앗대, 샛별.
3) 북한에서는 ㅂ 불규칙에서 '고마워·고마와, 아름다워·아름다와'처럼 쌍형 형태를 인정한다.

위와 같은 남북 표기법의 상이함은《겨레말큰사전》편찬과 동시에 이상적 '남북 표기법 통일안'(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어 통일 후 신속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기법 통일안은 비록 남북 기성세대에게는 기존의 표기법이 통용되고 있어 불편할 수 있으나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미래 세대에게는 남북 표기법을 가급적 단일화한 표기법 통일안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와 같은 남북 간의 불일치는 최소화하고 단일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 언어의 이질화가 아무리 극심하다고 해도 남북 언어의 차이에 대한 극복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낯선 언어 지역에 여행객으로 가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과 웃음의 언어와 사랑과 베풂의 마음으로 금세 이웃처럼 친해지게 된다. 이는 우리가 억센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땅의 영호남, 제주에 가도 동족의 인정(人情)으로 금세 친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남북 언어의 이질화는 통일의 방해물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므로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남북 신뢰의 문제일 뿐이다. 남북 기성세대가 불편하다고 남북 미래 세대의 통일 표기법 수립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겨레말큰사전》은 그런 '점진적 통합과 궁극적 통일'을 향한 한민족 언어 통합의 장정(長征)에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정치·사회적 통일까지 이루는 믿음

우리는 독일 통일, 중국 양안(兩岸) 교류의 사례를 거울삼아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의 예상되는 언어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사업회 역시 국립국어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남북 언어 통일의 사회언어학적 정책 연구, 다양한 이주민들의 언어 정착과 통합을 위한 실증적 연구, 해외 한민족 공동체의 언어 유지 및 상실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인류언어학적 연구도 지속적, 장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독일은 분열기인 1838년 그림(Grimm) 형제가 시작한《독일어사전》편찬을 2차 세계대전 후 동서독 분단기까지 이어가 1961년 122년 만에 완성하였다. 중국과 대만도 1996년 1차로 공동사전 편찬을 시작해 2003년《양안현대한어상용사전(兩岸現代漢語常用辭典)》을 발간하였고, 2차로《중화어문대사전(中華語文大辭典)》을 2016년에 완간하였다. 따라서 남북한도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와 국제 정세 속에서도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창조적으로 혁신하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각오로 독일의 '인내'와 중국의 '실용' 정신을 거울삼아 언어문화 통일사업인《겨레말큰사전》편찬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 정치·사회적 통일까지 이루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민현식

겨레말큰사전 이사장.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전 강릉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수, 국립국어원장 등을 역임하고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국어 문법 연구』(1999),『국어 교육을 위한 응용국어학 연구』(1999),『국어 의미 교육론』(2019, 공저),『한국어학 입문』(2020, 공저),『한국어학 개론』(2020, 공저) 등이 있다.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 겨레말큰사전 공동회의 20돌을 맞이하여

글 **권재일** 재단법인 한글학회 이사장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여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사전이다. 현재 남북 사전에 실려 있는 어휘를 가다듬는 것은 물론, 잊혀가는 지역어와 문헌어도 올림말로 삼아, 같은 기준으로 새롭게 뜻풀이하였다. 이렇게 하여 《겨레말큰사전》은 통일 이후 원활한 의사소통의 문을 열어 줄 것이다.
이러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하여 공동편찬위원회가 출범한 지 스무 돌을 맞이하였다. 짧지 않은 세월이 어느새 지나갔다. 나는 처음부터 참여해서 지금까지 관여하고 있으니,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깊어, 지난 20년을 잠시 돌아보고자 한다.

나와 겨레말큰사전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것은 편찬사업이 시작된 2005년 11월 사업회에 단일어문규범위원회가 조직되면서부터이다. 분단 이후 서로 달라진 어문규범의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이다. 남측에서는 내가 위원장을 맡고 북측에서는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문영호 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내가 단일어문규범위원회를 그만둔 2009년 4월까지 이어졌다.



↑ 북측편찬위원장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문영호 소장과 함께

2008년 2월 홍윤표 선생님에 이어 나는 제2대 남측 편찬위원장을 맡음으로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새로 찾아낸 지역어, 문헌어를 포함하여 30만여 개 올림말을 확정 짓고 단일 어문규범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면서 뜻풀이를 위한 집필 지침도 확정했다. 그동안 13회에 걸쳐 개성, 금강산, 평양, 베이징, 선양 등지에서 열린 공동회의에 참석하였다. 2009년 4월 국립국어원 원장에 취임하면서 부득이 편찬위원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업회 이사를 맡아 지금까지 편찬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 언제 다가올지 모를 국토 통일에 앞서서 이런 언어 통합을 미리 준비해 둠으로써 어떠한 혼돈도 없이 효과적으로 남북이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다는 의미에서 《겨레말큰사전》은 그 가치가 따질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크다.

미리 준비해 두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참여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사업의 가치는 "미리 준비해 두다"였다.

한글학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적은 1933년에 맞춤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의 글자 생활의 규범을 정하고, 1936년에 표준어를 가려 뽑음으로써 언어생활의 규범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광복 전에 미리 이 두 규범을 마련해 두었다는 점이다. 1945년 광복되어 우리말과 우리글을 되찾았을 때, 어떠한 혼란과 혼돈 없이 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국어 교육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 규범을 미리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를 정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을 허비하고 국어 교육은 우왕좌왕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은 지금과는 달리 완전히 서로 다른 규범을 정하여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은 미리 준비해 둔 이 어문규범을 통해, 광복 이후 같은 뿌리의 말글 정책을 펼쳤으니, "미리 준비해 둔" 덕분이다.

남북의 언어학자가 서로 만나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통해 언어 통합을 실현하는 것의 가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언제 다가올지 모를 국토 통일에 앞서서 이런 언어 통합을 미리 준비해 둠으로써 어떠한 혼돈도 없이 효과적으로 남북이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다는 의미에서 《겨레말큰사전》은 그 가치가 따질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크다.

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또 다른 가치에 주목한다. 첫째는 서로 차이 나는 남북 언어를 두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올림말 선정에서도, 뜻풀이와 보기글 집필에서도, 어문규범에서도, 언어 이론과 서로 다른 사회 상황을 두루 참조하여 누가 보아도 가장 타당하다고 평가할 합의안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의의라 생각한다. 둘째는 사전 편찬 인력을 양성하였다는 것이다. 20세기를 끝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전 편찬은 중단되었다. 물론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보완하는 조직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전을 편찬하는 곳은 지난 20년간 사업회가 유일하다. 만약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사전 편찬은 막을 내렸고 사전 편찬 인력은 사라졌을 것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 사전 편찬, 나아가서 국어학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고 자부한다.

단일 어문규범 합의

서로 다른 남북의 어문규범을 단일화해서 사전의 올림말과 뜻풀이에 반영하는 것은 사전 편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사전의 자모 배열순서, 띄어쓰기, 사이시옷, 두음법칙, 외래어 표기 등 여러 부문에서 단일 규범



↑ 개성 봉동관에서 열린 제4차 공동회의 기념사진

을 합의하였다. 사이시옷과 두음법칙 표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그간 서로 달리 써 온 어문규범을 남북의 국어학자들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논의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내가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처음 관여한 계기는 바로 단일어문규범작성위원장을 맡고부터이니, 나에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다. 2005년 11월 24일, 개성 봉동관에서 열린 제4차 공동회의에서 첫 단일어문규범작성위원회가 열렸다.

첫 회의에서 다룬 주제는 바로 사전에 올림말을 실을 자모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였다. 북측 대표인 문영호 소장이 인사말에 이어 "자음 순서에 대해 남측 대표인 권 선생이 먼저 말해 보라"고 했고 나는 남측이 네 가지를 양보하겠으니, 북측에서는 하나만 양보하라 했다. 문 소장이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했다. 그래서 ㄲ, ㄸ, ㅃ, ㅆ, ㅉ은 북측 방식대로 하겠다, 다만 ㅇ이 모음이기는 하지만 우리 민족이 워낙 오랜 관습으로 써 왔기 때문에 그것은 남측 방식대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내가 이렇게 제안하면서 가졌던 속생각은 만약에 뭔가를 합의해서 서울에 돌아와 언론이나 학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겹자음을 뒤로 보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국민들이 겹자음의 위치보다 ㅇ의 위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ㅇ을 북측 방식으로 하고 겹자음을 남측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은 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겨레말큰사전》 올림말의 자음 순서는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ㄲㄸㅃㅆㅉ'으로 정하였다. 공동회의 참석 첫날 나로서는 굉장히 흐뭇했다.

둘째 날은 모음 순서를 정하였다. 나는 회의 처음부터 모음 순서는 북측 방식인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를 전적

으로 따르겠다고 제안하여 별 토론 없이 잘 마무리하였다. 왜냐하면 어제 자음 회의에서 ㅇ 위치를 북측에서 양보했으니, 남측은 모음을 양보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인데, 실은 우리 측 속사정도 고려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한테 모음 순서를 말해 보라면, 열 가운데 아홉은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라 대답한다. 그러나 우리 규범은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이다. 그러니 위와 같이 북측 방식으로 합의해도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 할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기에 앞서,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관련한 현실을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현실이 타개되지 않는 한, 사전 편찬을 위한 남북 교류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현실은 북측이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여 남한말을 괴뢰말로 규정한 것이다. 둘째 현실은 북측이 남측과 동일 민족임을 부정하는 정책이다. 이 두 현실은 민족 즉, '겨레'의 말과 크게 어긋난다. 북측이 《겨레말큰사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둘째는 우리 말글 연구와 자료 구축을 위하여 할 일이다.

첫째,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할 일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그간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국민들의 언어생활과 북한어 이해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그 결과물을 최대한 빠르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더욱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사업회에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사전과 어문규범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는 우리 말글 연구와 자료 구축을 위하여 할 일이다. 지금부터 《겨레말큰사전》 편찬 백서를 집필해야 한다. 총괄, 올림말, 뜻풀이, 어문규범, 합의 방식 등에 대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으로 보존하여 앞으로 국어사전 편찬의 중요한 길잡이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겨레말큰사전》 자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사전학적 연구, 언어정책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면서 국내외에서 수집한 문헌어 말뭉치, 지역어 말뭉치를 학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널리 활용하도록 가공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사업회가 추구하는 '남과 북의 말을 잇습니다, 겨레의 꿈을 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공동회의 스무 돌을 맞이하면서 다시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권재일

재단법인 한글학회 이사장, 겨레말큰사전 이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국립국어원 원장, 한글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문법사』, 『언어학사강의』,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세계언어의 이모저모』, 『말로써 행복을』 등이 있다.

‘말[言] 문(門)은 열어야’: 남북 언어 분단과 겨레말

글 **전영선**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보호’를 명분으로 그어진 언어의 경계선 「평양문화어보호법」

2025년은 여러 의미가 있는 해이다. 남북 분단 80년이 되는 해이며, 2005년 금강산에서 남북이 만나 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한 때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이다. 분단 80년을 맞이하는 2025년 상황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합의했던 2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1989년 문익환 목사와 김일성 주석이 합의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05년 2월 20일 금강산에서 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하였던 역사의 순간은 햇빛에 바래지기 직전이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을 이어주던 소통의 끈이 없어졌다.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되었고, 2024년 10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일부가 폭파되었다. 남북을 오가는 육로가 완전히 끊어졌다.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다. 남북 공통성의 상징인 언어 사이에도 휴전선보다 큰 장벽이 세워졌다. 2023년에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아래 「평양문화어보호법」)이다.

북한은 2023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법의 명칭에서 명시하였듯이 「평양문화어보호법」은 ‘평양문화어’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이다.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목적에 대해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배격하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 언어생활 기풍을 확립하여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 나가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 명시하였다.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 통제 조치로 평가하였다. 북한 사회에 ‘한류’를 비롯하여, ‘아랫동네’의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하였다는 것이 공통적인 분석이다. 실제 법의 내용 대부분은 ‘보호’나 ‘증진’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여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제2조 정의)로 규정한 ‘비규범적 언어’의 유입, 유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았다. 「평양문화어보호법」 조문은 “괴뢰말투를 따라하는 현상”부터 ‘호칭’ 등의 언어생활에서 한국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심지어 남한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 ‘출판물’, ‘전단지’, ‘강하천이나 바다로부터 유입된 괴리말찌꺼기’를 소지하거나 ‘인터넷서체’, ‘방송물’, ‘그림’, ‘사진’, ‘족자’, ‘휴대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처벌 수위도 매우 강하다. 처벌 대상에는 괴뢰 말투를 사용하는 공민은 물론, 괴뢰말이 유입될 수 있는 국경이나 강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 경내로

유입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된다. 처벌에서도 '엄한 법적 제재'를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국가는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류포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괴뢰문화에 오염된 쓰레기로, 범죄자로 락인하고 그가 누구이든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처벌 방식도 공개 처벌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야말로 '괴뢰 말투와 관련한 어떤 것'이라도 유입과 유통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에 앞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모두 외부 문화의 유입에 대한 강한 경계와 청년들에 대한 사상재교육을 강제한 것이었다. 사회 통제에 대한 강도가 높아진 2019년 이후에 취해진 일련의 문화 통제 조치로 파악되는 이유이다.

새로운 언어 표준을 정한 것은 1966년이었다. 김일성은 1966년 5월 14일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일군들과 한 담화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 나갈데 대하여」에서 '문화어'를 새로운 표준어로 규정하였다. '문화어'는 기본적으로 평양말이다. 이때 평양말은 지역적인 의미 이상이었다. '평양문화어'라고 하지 않고, '문화어'라고 한 것은 '평양'이라는 지역성보다는 문화성, 즉, 사회주의 조선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 혁명의 수도인 평양에서 문화성 있는 언어를 강조하는 의미였다. '문화성'은 표준어의 원칙으로서 '교양 있는 서울말'에서 '교양'에 해당하는, 사회주의 혁명화가 진행된 '고상한 평양말'이었다. 새로운 표준으로 '문화어'를 정하고, 《조선문화어사전》도 발행하였다. 하지만 언어의 중심은 민족이었다. 조선 민족의 말과 글인 '조선어', '조선말'이었다. 비록 남북이 분단되고, 언어에서 차이가 생기기는 하였지만 한 민족으로서 공통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모델로서 '문화성'을 갖춘 언어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다.

남북 교류 전문가가 바라본 공동회의의 의미와 가치

물리적인 공간은 이을 수 있다. 하지만 문화 분단의 장벽은 새로 잇기가 쉽지 않다. 독일 통일 사례는 문화의 장벽과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통일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제도의 통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장벽을 허무는 과정이다. 틈을 내고, 넘나들면서 소통의 길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어쩌면 당연한 순리일 것 같은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은 그 사회의 문화적 성과를 총결하는 과정이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의 공통성을 확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남북 사이에 막혔던 말[言]이 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門)은 열려 있어야 한다.

남북이 만나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에 합의한 이유는 분명하다. 겨레의 말이 통해야 하고, 언어가 통해야 민족으로서 공통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언어 정책은 '언어가 민족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언어 문제에서는 계급보다 민족을 우선하였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고, '언어 정책'은 겨레말로서 '민족어를 발전시키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원칙이었다. "피줄이 같고 한 령토 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피줄과 언어를 같이하고 한 강토 우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두개의 조선》은 결코 있을수 없으며 우리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

>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남북이 하나가 되어 분단된 언어의 장벽을 넘는 사업이다. 분단이 길어지면 남북의 문화 장벽도 높아진다. 80년의 시간은 광복과 함께 분단된 이후로 소통 없이 지내온 시간이었다.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은 시나브로 쌓인 남북 문화의 장벽을 체감하고, 소통을 위한 창구로 시작된 사업이었다.

여야 한다.", "북과 남의 언어적 차이가 커"지면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될 것"[1]이라는 것은 최고지도자의 문헌을 통해서 반복하여 강조한 원칙이었다.

민족의 공통성을 이루는 한 요소로서 민족어의 특성을 살리고, 민족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일관되게 이어졌다. 국토가 분단되었고, 정치와 경제 제도가 다른 상황에서 분단이 길어졌지만 '민족'이라는 공통성을 놓지 않았다. 조선어는 오랫동안 조선 민족이 공유한 언어라는 인식이 확고했기에, 남한과 북한이 다른 언어의 기원을 가졌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단일성과 유구성을 부인하고 민족분렬 책동과 식민지화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일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의 언어 정책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의 언어 정책과 차이가 있다. 민족어로서 '조선어'보다는 '국어(國語)'로서, '평양문화어'를 더 강조한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북한 언론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다. 이대로 간다면 남북의 언어는 두 개 국가의 언어가 될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남북이 하나가 되어 분단된 언어의 장벽을 넘는 사업이다. 분단이 길어지면 남북의 문화 장벽도 높아진다. 80년의 시간은 광복과 함께 분단된 이후로 소통 없이 지내온 시간이었다.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은 시나브로 쌓인 남북 문화의 장벽을 체감하고, 소통을 위한 창구로 시작된 사업이었다. 남북이 분단되어도 하나의 핏줄과 하나의 언어로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의 의미였다. '모국어의 생명이 겨레의 영혼입니다.'라는 문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뼈와 살인 우리 말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대변한다.

남북 교류의 방향과 편찬사업에 대한 전망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으로 겨레의 말을 이어가야 한다는 당위성과 의미는 절실함 이상이다. 분단 극복의 노력으로 일군 성과를 축하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넘어야 할 파고와 산은 험준하고 가파르다.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언어라고 하면 오랜 옛날부터 시작하여, 장구한 시간 속에 생활과

1) 차영애 편집, 「민족어를 발전시키는데서 견지한 원칙」, 『민족어를 발전시킨 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85, 6~7쪽.

문화를 함께 하면서 올곧게 굳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언어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언어가 태어나고 유통되고 자리 잡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실제로 많은 언어들이 분화되고 새로운 언어들이 출현한다. 제국주의 시기에는 식민지 지역에서 새로운 언어들이 만들어졌다. 낯선 언어, 새로운 문화와 접하게 된 원주민들이 두 가지 언어를 섞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었다. 이런 종류의 언어를 '피진'이라고 한다.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태어난 콩글리시도 피진의 일종이다. 피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용어가 되고,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면, 새로운 언어 '크레올'로 불리게 된다. 크레올은 일종의 혼종어이다. 언어를 비롯하여, 이질적인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로 태어날 때도 크레올이라고 한다. 이렇게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10년 또는 20년 정도이다. 남북의 언어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80년 동안 유통되었으나 달라졌어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보아야 한다.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사실인지 알 수 없다. 탈북민이 충분히 이해한 것인지, 이해하는 척을 한 것인지, 남북의 언어가 차이 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남한에 정착한 지 오래되어서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게 된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려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어느 정도 차이 나는 지를 확인이 필요하다.

언어는 폭이 매우 넓다. 같은 말을 한다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맥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받아들이는 차이도 다르다. 언어는 그 자체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이런 이유로 타문화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언어가 소통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년이나 3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세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언어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충실하게 의미를 정리하고, 가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언어는 공공의 영역이다. 공적 자금과 자원을 통해 언어의 공통성을 유지해야 한다. 토도로프는 『상징의 이론』에서 "언어는 민족의 정신을 표명하기 위한 특권적인 방법"이면서도 "거꾸로 민족이 그 언어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하였다. 언어가 달라지면 민족의 공통성은 휘발된다. 나아가 민족도 분열된다. 분단 8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남다른 것은 언어의 이질화는 곧 민족의 분열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단기적으로 끝날 일종의 사업이 아니라 지속하면서, 넓혀나가야 할 문화 소통의 문(門)이자 창이다. 통일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겨레말큰사전》은 이어져야 한다.



전영선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박사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북한 아파트의 정치문화사』, 『북한 지식사전』, 『공화국의 립스틱 : 김정은 시대 뷰티와 화장품』,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글과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사회와 문화』, 『북한의 언어-소통과 불통 사이의 남북언어』 등이 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이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사회문화) 및 특별위원회 위원, 북한학회 회장, 겨레말큰사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로 가는 디딤돌 《겨레말큰사전》 만들기 20년

글 **이경우** 미디어언어연구소 소장

언론은 공동회의를 어떻게 보도했을까

2005년 8월 14일~17일 광복 60돌 기념 8·15 민족대축전이 서울에서 열렸다. 14일 서울에 도착한 북측 대표단이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이들은 6·25 전사자 위패와 무명용사 유골이 모셔진 현충탑을 참배했다. 분단 이후 처음이었다. 5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역사적인 일로 기록됐다. 북측 대표단의 우호적이고 파격적인 행보는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당시 북측 대표단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핵문제의 고비를 넘고,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나가자."라고 했다.

남북 간에 새로운 화해 분위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협력과 평화로 가는 힘을 얻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는 사전 편찬 요강을 확정해 발표했다. 언론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했다. 독자의 목소리를 빌려 지지와 당부를 전하기도 하고, 국민의 성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설을 내보내기도 했다.

[독자의 목소리] 겨레말큰사전 편찬 차분하게

요즘만 같으면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남북 화합의 축제를 가진 데 이어 남북한 학자들을 주축으로 '겨레말큰사전' 편찬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말과 글은 생각을 표현하는 상징 체계로, 반세기 이상 벌어진 남북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 주춧돌이 될 수도 있다. 분위기에 취해 당장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국민일보, 2005. 8. 17.)

[사설]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민족 정체성의 대장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8·15 민족대축전 폐막일인 그제 5개 항의 사전 편찬 요강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그 의미가 사뭇 심장하다. 지난 2월 남북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한 뒤 불과 6개월 만에 편찬 요강까지 내놓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 준 것도 주목된다. … 남은 문제는 국민과 정부의 성원이다. … 국민적 성원만이 이런 한계를 넘어 훼손된 민족 공동체의 기반인 말글살이를 오롯이 아우를 수 있게 할 것이다. (한겨레, 2005. 8. 18.)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카인즈에 따르면 이후 겨레말큰사전이 언급된 기사는 2005년 55건에서 2007년 112건, 2008년 108건, 2014년 135건, 2015년 108건으로 늘었다. 100건을 처음 넘긴 2007년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해였다. 2014년에는 2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9월 북측 선수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7월에는 공동회의가 5년 만에 재개됐다. 이후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자 겨레말큰사전 관련 언급도 급격하게 줄었다. 그러다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324건, 2019년 138건을 기록한 뒤 2024년에는 4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매체별로는 카인즈에서 '겨레말큰사전'을 검색하면 2025년 3월 현재 한겨레가 388건으로 가장 많이 보인다. 경향신문이 89건으로 그다음이었다. 중앙일보 27건, 동아일보 20건, 조선일보 16건이었다. 진보적인 매체가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렇지만 그것도 남북 관계가 좋을 때만이었다. 정치적 산물인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언론의 보도 내용도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게 많았다. 그렇다 보니 편찬 작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 기사는 적었다.

공동회의 이후 후속 보도도 꾸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반 국민들은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접하기 어려웠다. 겨레말큰사전 관련 기사에서 많이 다뤄진 건 언어 이질화였다.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징어'와 '낙지' 등 흥미를 끌 만한 어휘와 전문용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다뤘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기대와 환영 일색의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언론은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남북은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달리하면서 생활해 왔다. 따라서 사전 편찬 작업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언론은 공동회의에 어떤 의미를 두었을까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전격 방문했다. 북의 김일성 주석을 만난 문 목사는 남쪽에서 나온 국어사전을 선물로 건넸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남북 통일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고, 통일에 대비해 남북 공동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데 합의했다. 사전 편찬의 씨앗이 뿌려졌다. 통일로 가는 길을 놓는 일이었다.

사전 편찬은 이후 16년이 지난 2005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겨레말큰사전》 공동회의는 단순히 국어

> 공동회의는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일이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사전을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의 《조선말대사전》을 기계적으로 합치지 않고 민족어의 유산을 조사해 미래 지향적으로 사전을 편찬하고 있다.

사전을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 협력과 화해를 가져오게 했고, 통일의 꿈을 더욱 키우게 했다. 논의하는 시간을 늘리며 서로의 신뢰도 높여 갔다. 정치적 신뢰도 높여 가는 일이었다.

분단은 국토의 분단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생각도 언어도 갈라지게 했다. 갈라진 남과 북이 각각 만든 국어사전은 결과적으로 온전한 사전이라고 할 수 없었다. 한쪽은 표준어, 한쪽은 문화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말을 만들어 갔고, 민족의 언어는 분단이라는 틀에 갇혔다. 언어를 맞고 틀리고의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들기도 했다. 언어 이질화를 가져오고, 언어 민주화에 장애를 불러왔다.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는 공동회의는 분단 해소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우리의 언어를 새로 정리하고 더 풍부하게 하는 기초를 쌓고 있었다.

공동회의는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일이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사전을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의 《조선말대사전》을 기계적으로 합치지 않고 민족어의 유산을 조사해 미래지향적으로 사전을 편찬하고 있다.

남북이 정치나 군사 문제를 떠나 대화하고 협력하는 사례로도 평가한다. 공동회의가 남북 대화의 창구 구실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돼 왔다. 당장 어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도 특정 주제를 놓고 서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다. 나아가 공동편찬위원회의 학문적 협력과 협의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했다.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남북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말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남과 북은 분단 이후 80년을 서로 다른 곳을 보며 살고 있다. 생각도 달라지고 그것을 담는 말도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어 통합을 이뤄 간다는 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단순한 사전 편찬이 아니다. 사전 편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언론도 잘 안다. 새로운 것을 담고 부족한 것을 기우는 작업을 쉼 없이 해 나가야 한다는 걸 안다. 그 과정이 곧 평화이고, 그것을 사업회가 만들고 있다고 본다. 교류하고 소통하며 북쪽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알게 됐다. 공동회의는 남북 교류의 상징성도 지닌다. 이 회의의 결과물인 《겨레말큰사전》은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드문 협력 사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겨레말큰사전》 만들기 언제 다시 시작될까

남북 관계는 더 험악해졌다. 정치적 산물일 수밖에 없는 《겨레말큰사전》의 마무리도 앞이 안 보이는 듯하다.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다.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1월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괴뢰말투를 본따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책동에 동조하는 리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괴뢰말'은 남쪽의 말이다. 현재 남쪽을 향한 태도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월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북은 러시아와는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현재로선 우리가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6.5%만이 올해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화 없다'는 45.9%, '나빠질 것'은 45.6%였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는 국제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과 북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생각보다 빨리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다.

시리아는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우리 미수교국이었다. 북과 혈맹이어서 우리와 수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에 가까웠는데, 지난 4월 11일 전격적으로 수교가 됐다. 이에 앞서 북과 형제국이라고 하던 쿠바와 우리의 수교도 2024년 2월 이뤄졌다. 길게 볼 때 남북 관계도 냉각된 채로 길게 흘러갈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다.

어느 날 갑자기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남북 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마중물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 간 길을 내고 소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다. 사전은 이후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공동편찬위원회 출범 20년. 지금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조금 쓸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출범 초기처럼 《겨레말큰사전》 발간과 공동회의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희망, 당부 같은 말들이 아직 가득 차 있다.

공동회의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날이면 남북 학자들은 기차놀이를 했다. 재미없을 것 같은 어린이 놀이를 어른들이 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린이들처럼 웃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모두를 대신해서 울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격의 눈물일 수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섞인 눈물일 수도 있었다. 뭉클했다. 울컥해지면서 나도 왠지 모를 눈물이 나는 것 같았다. 《겨레말큰사전》 만들기는 이렇게 또 단지 국어사전 하나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그 과정,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울어야 할지 모른다.



이경우

미디어언어연구소 소장, 한겨레말글연구소 연구위원, 국립국어원 외래어심의위원. 서울신문 어문부장, 한국어문기자협회장,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위원,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서울신문에 사회적 이슈, 일상에서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를 뽑아 바른 말, 쉬운 말, 차별 없는 말 쓰기를 독려하는 〈말빛발견〉, 〈이경우의 언파만파〉 등을 연재했다. 『말실수가 두려운 사람을 위한 우리말 사용법』이라는 책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겨레말큰사전》 공동회의 20년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공동회의는 2005년 금강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평양, 개성과 금강산, 중국 베이징, 선양, 다롄 등 7개 도시에서 스물다섯 차례 개최됐다. 공동회의 20주년을 맞아 본지는 2005년 2월, 금강산에서 열린 제1차 회의부터 2015년 12월, 중국 다롄에서 열린 제25차 회의까지 공동회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기록관을 준비했다. 사진 속 스물다섯 차례 공동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남과 북은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올림말 30만 7천 개를 선정·집필하고 그중 12만 5천 개 어휘를 합의했다. 사업회는 현재 공동회의 재개를 준비하며, 2028년에 공개할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웹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제1차 공동회의(2005. 2. 18.~2. 21., 금강산)



↑ 제2차 공동회의(2005. 7. 8.~7. 12., 평양)



↑ 제3차 공동회의(2005. 8. 14.~8. 17., 서울)



↑ 제4차 공동회의(2005. 11. 24.~11. 27., 개성)



↑ 제5차 공동회의(2006. 3. 17.~3. 21., 베이징)



↑ 제6차 공동회의(2006. 5. 27.~5. 30., 금강산)



↑ 제7차 공동회의(2006. 9. 20.~9. 23., 평양)



↑ 제8차 공동회의(2006. 11. 27.~11. 30., 베이징)



↑ 제9차 공동회의(2007. 4. 27.~4. 29., 금강산)



↑ 제10차 공동회의(2007. 8. 8.~8. 11., 평양)



↑ 제11차 공동회의(2007. 10. 14.~10. 17., 선양)



↑ 제12차 공동회의(2007. 12. 7.~12. 10., 금강산)



↑ 제13차 공동회의(2008. 2. 19.~2. 21., 개성)



↑ 제14차 공동회의(2008. 5. 12.~5. 15., 베이징)



↑ 제15차 공동회의(2008. 10. 29.~10. 31., 개성)



↑ 제16차 공동회의(2008. 12. 13.~12. 16., 평양)



↑ 제17차 공동회의(2009. 3. 28.~4. 4., 평양)



↑ 제18차 공동회의(2009. 6. 21.~6. 30., 선양)



↑ 제19차 공동회의(2009. 10. 27.~11. 3., 개성)



↑ 제20차 공동회의(2009. 12. 17.~12. 23., 선양)



↑ 제21차 공동회의(2014. 7. 29.~ 8. 6., 선양)



↑ 제22차 공동회의(2014. 10. 30.~11. 8., 평양)



↑ 제23차 공동회의(2015. 5. 4.~5. 11., 선양)



↑ 제24차 공동회의(2015. 10. 12.~10. 19., 금강산)



↑ 제25차 공동회의(2015. 12. 6.~12. 13., 다롄)

공동회의 재개를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 성과, 지속적인 축적 필요

조남호 남측편찬위원장,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완간된 사전이 나오지 못해 안타깝다. 그렇지만 그동안 쌓인 성과도 많다. 남북의 생생한 언어 사용 현황이 공유되었고 사업회에 북한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많이 축적되었다. 기약 없이 만남을 기다리는 것은 괴롭지만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 성과를 지속적으로 쌓는 끈기가 필요한 때이다.



남북 언어문화 통합 사전의 발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김강출 남측편찬위원, 겨레말큰사전 책임편찬원

그동안 남측편찬위원회는 북측편찬위원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편찬사업의 성격과 편찬 방향, 편찬 일정 등을 합의함으로써 편찬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편찬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뒤에는 편찬 실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편찬 실무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남북 합의안 도출을 위하여 고심해 왔다. 지난 20년 동안 남측편찬위원회의 도움으로 내부 편찬 인력의 역량도 함께 성장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남측편찬위원회의 전문가적 식견, 학술적 판단 등이 요구되는 사안도 여전히 상존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남북 언어문화 통합 사전 발간을 위해 다시 한번 지혜를 모을 때이다.



남북의 사전 편찬은 조선어학회라는 공통된 과거의 기억 위에 서 있다

김재용 남측편찬위원,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회의에 처음부터 참여해 근 20년 동안 북측의 많은 학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남북의 사전 편찬이 모두 조선어학회라는 뿌리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일제시대 제국주의의 언어 말살에 맞서 나온 조선어학회는 해방 후에 각자 사전을 만들면서도 이 공통된 과거의 기억 위에 서 있었다. 이 기억의 힘은 향후 《겨레말큰사전》이 난관을 극복함에 있어 밑바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겨레말큰사전》, 남북이 다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응원이 필요하다!

도원영 남측편찬위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현재 우리 국민은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의 국어사전을 웹을 통해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언어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전, 남북 언어의 같고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다. 편찬사업이 마무리되려면 공동회의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되어 공동회의를 개최한 지 20년이 된 지금,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

박덕규 남측편찬위원,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명예교수

공동편찬위원회는 양측이 함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통의 규범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해오다가 한쪽만 남아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언제 다시 머리를 맞대는 때가 올지 알 수 없다. 남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다. 막연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함께 하던 때 고민하고 모색하던 것의 연장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시뮬레이션하면서 당초 계획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 제기를 해올 가능성이 큰 항목을 세목별로 정리해서 그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는 지혜가 요청된다.

희망하며



새로운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실행하는 사업회가 되기를 기대

이관규 남측편찬위원,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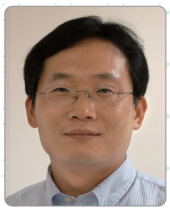
분단 80년이 지나고 있지만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는 지난 2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다. 통일 담론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지금이지만 남북의 공동편찬위원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역사 앞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전담 기구인 사업회는 앞으로 남북의 사전학적 언어 규범 등에 대한 역사적 연구도 추진하고, 데이터 인공언어의 수집, 개발 등 새로운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행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



집집마다 《겨레말큰사전》이 놓이는 그날까지

이승하 남측편찬위원,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준비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낸다. 아자아자 나아가자. 집집마다 《겨레말큰사전》이 놓이는 그날까지.



남북 편찬위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임보선 남측편찬위원, 겨레말큰사전 편찬전문위원

공동회의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공동회의 장면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본인은 제5차 공동회의 때부터 참여했다. 남북 편찬위원들은 회의 석상에서 자신의 안을 관철하기 위해, 좋은 사전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열성을 기울였다. 남북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로 간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갔다. 남북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사전 편찬 작업이 고됐으나 순조롭게 진행됐다. 본인은 머지않아 공동회의가 재개되리라 믿는다. 공동회의가 재개될 때 남북 편찬위원들이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사업회에 불어올 훈풍을 고대하며

정인호 남측편찬위원,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본인이 남측편찬위원으로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외풍의 영향을 적잖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인해 몇 년째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애초에 바랐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하루빨리 우리 편찬사업에 훈풍이 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길 기대

정희원 남측편찬위원, 전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겨레말큰사전》은 편찬 과정 자체가 남북의 통합을 상징한다. 미리 준비하는 통일 연습이랄까.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 서로 다른 어문규범, 그에 따라 달라진 언어 사용을 한 가지 원칙으로 엮어내는 일. 이를 위해 남북 학자들은 긴 시간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거듭해야 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미리 만나는 통일'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길 기대한다.

'가마치'와 '누룽지'의 추억

다른 듯, 다르지 않은 남북 언어

글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가마치는 어릴 적 나의 '최애' 간식

"오늘은 가마치[1] 튀겨줄까?"

"야! 신난다! 할머니, 빨리해 주세요."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돌아오니, 외할머니가 나를 반기며 말씀하셨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외할머니는 내 간식거리를 생각하신 모양이다. 나는 너무 신나 폴짝폴짝 뛰었다. 바삭한 가마치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어쩌다 기름이 생겨 튀겨 먹으면 그 맛은 일품이었다. 고소한 기름에 튀겨낸 가마치는 어릴 적 나의 '최애' 간식이었다.

그 시절 사탕, 과자와 같은 간식은 충분할 리가 만무했다. 북한의 아이들이 갖가지 당과류를 먹어볼 수 있는 날은 2월 16일(김정일 생일, 1982년부터 실시)과 4월 15일(김일성 생일, 1979년부터 실시)이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전국의 7세~12세 미만 학생들은 국가에서 보내주는 1kg에 해당하는 당과류 선물을 받았다. 12세 이상 중학생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이 시작되면서 1월 8일(김정은 생일, 2013년부터 실시)에도 당과류 선물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6세 이하 아이들로 대상이 축소됐다. 당과류 선물의 질도 떨어졌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2024년 북한 내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1kg의 당과류 생일 선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난한 주민들은 (…중략…) 생일 선물이 아니면 어린 자식들에게 당과류를 먹일 기회조차 없다."[2]라고 전할 정도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일은 여전히 호사스러운 일이다.

외할머니가 끓여주셨던 구수한 가마치

나의 학창 시절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공급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때라, 끼니를 굶는 집은 없었다. 다만, 아이들이 많은 집은

---

1)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가마치'(명사)는 "솥바닥에 밥이 눌어붙은 것, 누룽지, 눌은밥"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43쪽;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가마-치'(명사)를 "눌은밥"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검색일: 2025. 3. 5.)

2)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 일부 주민들 "김정은은 선물 도둑"〉, https://nkinfo.unikorea.go.kr/nkp/news/view.do;jsessionid=rGuyOlaJ_P_qHWWfUSOK71EQ55kRXw6Kv4Ui3-pM.ins12?menuId=MAIN_NEWS&cntntsMngNo=5429823(검색일: 2025. 3. 5.)



늘 식량이 빠듯했다. 한창 커가는 아이들의 뱃골을 든든히 채워주기에는 하루 취학아동 1인 기준 400g[3]으로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식구가 많은 집 엄마들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조금이라도 더 채워주려고 어떻게든 가마치를 만들지 않았다. 가마솥에 쌀을 안치기 전에 무채를 두껍게 깔거나, 시래기나 감자를 깔고 밥을 지어 양을 늘리려고 애썼다.

우리 집은 식구가 단출해서 무밥이나 시래기밥을 먹지 않았다. 당시 일반 노동자들은 7:3 비율(잡곡 70%, 쌀 30%)로 배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도 흰쌀밥은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못 먹었다. 그나마 잡곡밥이라도 가마치는 늘 먹을 수 있었다. 외할머니는 아침밥을 지을 때 말랑말랑한 가마치를 뭉쳐 학교 가는 내 가방에 넣어주셨다. 저녁밥을 지을 때는 가마치를 바삭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감기에 걸려 입맛을 잃어도 외할머니가 끓여주셨던 구수한 가마치를 뜨끈하게 먹으면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도 했다.

가마치를 모른다고?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우리 집도 죽을 먹기 시작했다. 더 이상 가마치를 먹기 힘들어졌다. 동네마다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겼다. 무서웠다. 나는 돈을 벌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두만강을 건넜다.

20대 후반, 우여곡절 끝에 나는 운 좋게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끼니 걱정 없이 하루 세 끼 밥을 해 먹는 일은 매우 편리해졌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연기를 맡아가면서 밥을 짓지 않아도, 전기밥솥이 윤기 좔좔 흐르는 흰 쌀밥을 척척 만들어줬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가마솥에서 만들어지는 그 가마치 맛은 전기밥솥에서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구내식당이나 일반식당 음식은 도통 입에 맞지 않았다. 대부분의 음식 맛이 너무 달고, 김치는 양념이 너무 많아 물에 씻어내 먹었고, 이것저것 반찬들을 먹어봐도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내 입맛을

3)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북한은 부양가족(300g), 미취학아동(300g), 취학아동(400g), 노동자(700g) 및 탄광, 광산 등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900g)에 대한 식량배급제를 실시했다. 이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배급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1), 310~313쪽.



>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대뜸 언어 문제라고 말한다.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한민족이었던 남과 북, 5천 년의 역사를 공유했던 우리가 떨어져 지낸 80년의 시간만큼 문화도 달라지고 언어도 많이 달라졌다.

걱정해 친한 동료들이 맛집을 찾아 데리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불쑥 '가마치'라는 단어가 튀겨 나왔다.

"아, 가마치 너무 먹고 싶어요."

"가마치가 뭔데?"

"밥할 때 밑에 눌어붙은 걸 가마치라고 해요."

"그건 누룽지[4]지. 우린 누룽지라고 해."

옆에 앉은 언니가 정말 모른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니, 가마치를 모른다고? 그걸 누룽지라고 부른다고?

그 뒤로 친한 동료들은 음식 메뉴에 '누룽지'가 있는 식당을 찾아 나를 데리고 다녔다. 무슨 엄청난 발견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가마치를 먹고 싶던 소원은 누룽지로 이루어진 듯했으나, 사실 가마솥 가마치 맛을 온전히 느끼지는 못했다. 어쨌든 그들 덕분에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시간을 버텨냈던 것 같다.

'최애 간식'이 '특별 음식'으로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가마치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생소한 단어다. 가마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면 금방 알아듣지만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생소해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가마치에 대한 정의는 남북한 언어 사전에 비슷하게, 공통적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누룽지'(명사)는 "솥 바닥에 눌어붙은 밥"으로 정의하고 있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검색일: 2025. 3. 5.)



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사용 빈도에 따라 생소한 단어로 느껴지는 것 같다.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대뜸 언어 문제라고 말한다.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한민족이었던 남과 북, 5천 년의 역사를 공유했던 우리가 떨어져 지낸 80년의 시간만큼 문화도 달라지고 언어도 많이 달라졌다. 가마치와 누룽지처럼 같은 음식이나 재료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예 생소한 명칭들도 참 많다.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니, 가마치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최애 간식'이었고, 한국에 와서는 이곳의 맛에 적응하는 시간을 버티게 해준 친한 동료들의 애정 담긴 '특별 음식'이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는 가마솥 가마치 맛을 비슷하게 만들어 파는 누룽지 가게가 있다. 나는 그 가마치가 떨어질세라 사 놓는다. 오늘 저녁에는 그 가마치를 꺼내어 아들과 함께 맛있게 튀겨 먹어야겠다. 외할머니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와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겨레말큰사전 북한 토박이말 자문위원,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주

글 주영훈 겨레말큰사전 선임편찬원





아이가 말을 곧잘 하게 되면서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아이의 질문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나를 당황하게 만들곤 한다. 갑작스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축제가 뭐야?", "십자가가 뭐야?"하고 물으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아이의 호기심 앞에서 나는 늘 부족함을 느끼곤 한다.

얼마 전에도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있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동물이 폴짝 뛰어 재주를 넘는 장면을 본 아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재주가 뭐야?"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책의 내용에 따라 "뛰어서 한 바퀴 도는 동작이야."라고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내 정확한 뜻을 찾아보려고 사전을 펼쳐보았다.

'재주를 넘다'는 우리말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웹)에는 '재주'의 뜻풀이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재주를 넘다'의 의미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웹)에 따르면, '재주'는 다음과 같이 뜻풀이되어 있다.

> **재주** 「명사」
> 「1」 무엇을 잘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과 슬기.
> 「2」 어떤 일에 대처하는 방도나 꾀.

위 뜻풀이는 주로 사람의 능력, 기술, 솜씨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 풀이 가운데에는 '재주를 넘다'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신체적 동작이나 체조 동작으로서의 의미가 빠져 있다. 이는 언어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사전적 정의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재주를 넘다'라는 표현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 신문 기사, 방송 매체 등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아래는 이러한 용례이다.

> ○ 노인이 갑자기 **재주를 넘어** 몸을 훌러덩 바로 세운다.《홍성원: 괴질》
> ○ 마짱은 내 앞에서 폴짝폴짝 뛰더니 **재주까지 넘는다.**《김희진: 양파의 습관》
> ○ 땅을 짚고 앞으로 뒤로 **재주를 넘는** 살판쇠의 기예도 예사롭지 않았다.《유익서: 소리 꽃》
> ○ 7살 동욱이는 휴일이면 아빠와 집에서 뛰노는 걸 좋아합니다. 소파에서 껑충껑충 뛰고 **재주를 넘다 보면** 위험하게 넘어지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MBC: '아이들 머리 조심' 뇌진탕 환자 20%가 영유아》

위 용례들에서 '재주'는 단순히 타고난 능력이나 솜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체 동작을 의미한다. 신체 동작으로서 '재주'의 용례를 찾다 보니, 기술적 능력이나 묘기를 뜻하는 의미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는 그러한 용례이다.



○ 서커스단 소녀의 누워 통돌리기나 공중그네 건너뛰기 같은 **재주나**….《정호경: 현대의 섬》
○ 주꾼(서커스)들은 모두 불려와서 제각기 지니고 있는 **재주를** 선보였다.《김혜석: 양귀비》
○ 해화의 남편이 된 형은 어린 시절 서커스 같은 **재주를** 부린 대가로 이미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
○ 공중을 날기는 오히려 쉬운 일이요, 높이 솟은 대나무 끝에서 잔약한 팔 하나에 전신의 무게를 싣고 날으는 듯 거꾸로 머물러 있기란 도저히 못 부릴 **재주였다**.《정비석: 색지풍경》

이러한 다양한 용례들을 바탕으로 '재주'의 뜻풀이에 기술적 능력이나 묘기를 나타내는 뜻과 신체 동작을 나타내는 뜻을 추가하여 보았다.

재주 (才–) [명]
① 무엇을 잘할 수 있는 타고난 소질이나 재능.
② 어떤 일에 대처하는 방도나 꾀.
③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곡예나 묘기.**
④ **《주로 '넘다'와 함께 쓰여》 몸을 공중으로 날려서 뛰거나 도는 동작.**

부모가 모두 대답해 주기 어려운 아이의 수많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주변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아이의 노력일 것이다. 작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질문 하나하나는 세상을 향한 탐구이며, 어른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깨달음을 선물하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들의 순수한 노력은 사전을 만드는 나에게도 새로운 고민과 성찰로 이어진다.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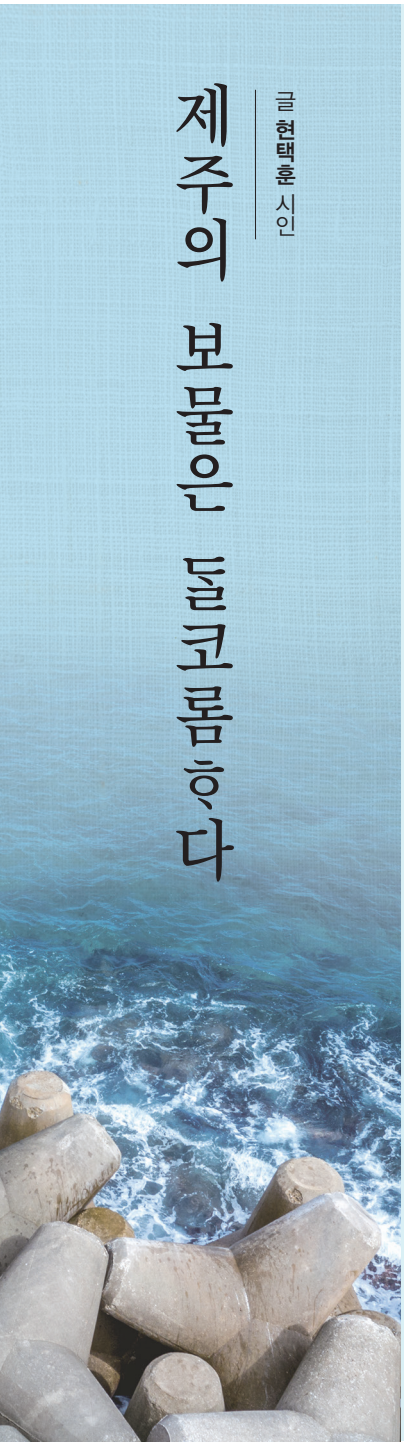
속에 담긴 뜻풀이가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전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역할과 가치를 지녀야 하는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단순히 단어 하나하나의 뜻만 간략히 설명하는 사전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세상을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사전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오늘도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는 손가락들은 컴퓨터 자판 위에서 열심히 또 다른 의미의 '재주'를 넘는다.



주영훈

겨레말큰사전 선임편찬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사업회에 입사해 편찬2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제주의 보물은 돌코롬ᄒᆞ다

글 현택훈 시인

고망

구멍

내가 그나마 잘하는 것은 고망낚시이다. 제주도 사람이지만 릴낚시를 잘 못한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고망낚시를 하다 보니 어느새 고망낚시에는 일가견이 생겼다.

고망낚시는 거창한 채비가 없어도 된다. 일단 고망낚시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낚시 가게에서 줄낚시 세트(보통 낚싯줄과 바늘과 뽕돌[1]이 함께 있다.)와 크릴새우 미끼를 산다. 만 원이면 충분하다. 릴낚시 정도는 아니지만 기분을 내고 싶다면 초보자용 낚시를 구매하면 된다. 물론 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크릴새우가 없다면 바닷가에서 보말[2]을 잡아 미끼로 쓸 수도 있다.

낚시 포인트는 낚시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면 된다. 고망낚시는 갯바위가 있는 얕은 바다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지만 그래도 썰물일 때가 좀 낫다. 주인은 대개 안전하게 고망낚시를 하기 좋은 곳을 안내해 준다.

고망낚시는 말 그대로 구멍에 대고 낚시를 하기에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 제주도에서 고망낚시를 하면 주로 잡히는 어종은 거의 정해져 있다. 조수 간만의 차로 말미암아 해안가에 붙은 갯바위 고망 트멍[3]에 머물러 있는 물고기들이 주로 잡힌다. 우럭, 볼락, 어렝이[4], 보들락[5] 따위이다. 간혹 메역치[6]가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등지느러미 부위에 독이 있기에 잡는 즉시 바로 풀어주는 게 상책이다. 최근에 제주 바다는 수온이 높아지면서 열대어인 범돔이 잡히기도 한다.

앞에서는 내가 객쩍게 낚시꾼인 양 떠들어 댔지만 사실 나는 낚시에는 서툰바치이다. 낚시계에서는 대개 허풍쟁이들이 많으니까 이해해 주겠지. 아이와 내가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 처가에 간 적 있었다. 장모는 평생 물질을 한 해녀이

1) '봉돌'의 제주 방언.
2) '보말고둥'의 제주 방언.
3) '틈'의 제주 방언.
4) '어렝놀래기'의 제주 방언.
5) '베도라치'의 제주 방언.
6) '미역치'의 제주 방언.



보들락



어렝이



우럭



볼락

다. 장모는 내게 '눈 까진 물고기'를 잡아 왔다며 웃었는데, 어리숙한 물고기라서 나 같은 초보 낚시꾼에게 잡힌 거라 여겨 하는 말이다.

고망낚시는 갯바위에서 하기에 현무암 돌 틈에 잘 걸린다. 그러면 낚싯줄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가위가 필요하다. 가장 어려운 점은 잡은 물고기의 아가리에 끼어 있는 바늘을 빼내는 게 너무 고역이다. 돌려서 빼야 하는데, 장갑은 반드시 껴야 한다.

간혹 방파제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그곳 틈에 빠지면 개미지옥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한다. 또 주의할 점은 제주도 갯바위는 현무암이라 울퉁불퉁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고, 비에 젖거나 해조류 같은 것이 껴있으면 무척 미끄럽기 때문에 멩심해야[7]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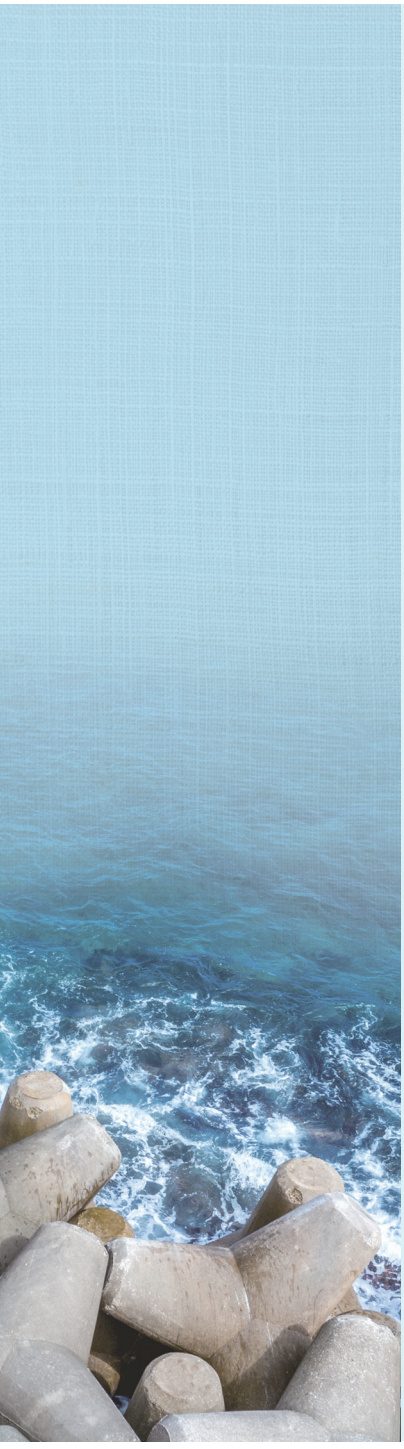
고망낚시의 묘미는 안 잡힐 것 같은 장소이면서 꽤 잘 잡혀 신날 수 있어서 재미있다는 점이다. 잡은 물고기는 내장을 빼고 손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냉동하더라도 썩는다.

제주시 조천에는 새콧할망당(일명 고망할망당)이 있는데, 그곳에는 뱀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 좌정을 하였다. 현기영의 소설『제주도우다』에도 새콧할망당이 언급되었다. 땅에 구멍 하나 있는 거라서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곳인데, 제주도 설화를 품고 있는 섬이라는 것을 감춘 듯 보여주는 곳이 그곳이다.

낚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주도에는 전설의 돗돔이 전해온다. 실제 돗돔은 심해어로 깊은 바다에 살다가 산란기 때 잠시 위로 올라온다고 한다. 지난 겨울에 우도와 구좌읍 행원리 사이 바다에서 몸길이 180cm가 넘는 돗돔이 잡혔다. 한 시간의 사투 끝에 잡았다고 하니 그야말로 '노인과 바다'의 한 장면이었겠다.

오멸의 영화 〈뽕돌〉(2011)은 전설의 돗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 그 영화에서 나름 명대사가 나온다. 배우를 하기 위해 제주도까지 온 인물이 감독에게 묻는다. 당신에게 영화가 무엇이냐고. 그러자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자파리". 자파리는 제주어로 "장난, 소일거리"를 뜻하는 말이다. 오멸 감독이 차린 영화

7) '명심하다'의 제주 방언. 제주에서 '멩심ᄒᆞ다'로도 적는다.



사도 '자파리 필름'이다. 영화에서 필름도 없는 카메라로 영화를 찍는 것은 예술에 대한 감독의 사상을 보여준다.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자는 것.
낚시 역시 과정에서 즐거움이 있다. 종일 바닷가에 앉아 있어도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그날 하루가 헛된 날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채비를 하고, 기대를 하고, 수면을 바라보며 옛 생각도 떠올리고, 낚싯바늘이 갯바위에 엉켜 낑낑대며 풀어보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법이다.

산탈

산딸기



제주도에서는 딸기를 탈이라 부른다. 뱀딸기는 베염탈이나 게염지탈 등으로 부르고, 산딸기는 산탈 혹은 그냥 탈이라 부른다. 뱀딸기는 이름 때문에 뱀이 먹는 딸기라 여겼으나, 실제는 뱀딸기 있는 풀섶에 뱀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제주도를 흔히 보물섬이라 부른다.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기에 활용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는 보물 지도가 있을 것이다.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낸 책 『제주섬의 보물지도』(한그루, 2018)에는 제주의 보물들로 곶자왈과 람사르 습지에 사는 제주의 멸종위기종 등을 호명한다. '바람을 이용하여 제주에 밀입국하는 곤충들', '여름잠을 자는 홍해삼', '똥낭(돈나무)으로 곰팡이 잡기' 등이 흥미롭다. 심지어 '제주산 옥돔과 가짜 옥돔 구별하기'나 '몸국으로 다이어트 하기'도 있다.
일곱 살 아이와 산딸기를 찾아 돌아다녔다. 산딸기를 만나면 반가워 사진을 찍어두었다. 산딸기는 해마다 그 자리에서 나니까 이듬해에 다시 찾아오자고 아이와 말했다. 그러려면 지도가 있어야 하니 '산딸기 지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근남로 5번길



고근산 입구



별도봉 장수산책로



서호초등학교 부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게 삼동나무[8]에 대해 알려줬다. 초여름이면 까만 열매가 열렸다. 군것질할 게 없을 때 그 삼동을 따 먹었다. 그걸 따먹으면 손과 입이 시커메졌다. 죠스바를 먹으면 입술과 혀가 검게 물드는 것과 비슷했다.

아버지는 그 삼동을 가지고 술을 담갔다. 그 삼동술은 귀한 사람이 오면 꺼냈다. 나도 살짝 맛보았는데 포도주와 맛이 비슷했다.

"아빠, 저기 산딸기 있다."

아이가 용케 발견하고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이는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했다. 나는 지도를 펼쳐 표시해 두었다. 이건 비밀인데, 몇 곳만 말하면, 별도봉 장수산책로에서 애기업은돌 가는 길가 풀섶, 화북 환해장성 바닷가 산책로에서 한라산 쪽 길가 풀섶, 서귀포 서호동 고근산 입구에서 시멘트길 따라가다 보면 개 짖는 소리 나는 곳 부근, 호근동 호근남로5번길, 서호초등학교 부근 철망 틈, 동홍분식에서 남주고등학교 가는 길로 가다가 오래된 감귤창고 직전 골목길 등.

이렇게 온 섬을 다니면서 산딸기 지도를 표시하면 그야말로 보물지도 아니겠는가. 아이와 나는 이듬해 봄에는 산딸기를 모아 잼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참지 못해 입에 다 털어 넣어 버릴지도 모르지만. 제주의 보물은 돌코롬ᄒᆞ다[9]. 끝

8) '상동나무'의 제주 방언.
9) '달콤하다'의 제주 방언.



현택훈

시인. 1974년 제주에서 태어나 2007년 《시와 정신》으로 등단했다. 시집 『지구 레코드』, 『남방큰돌고래』, 『난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글씨』, 동시집 『두점박이사슴벌레 집에 가면』, 산문집 『제주어 마음사전』 등이 있다.



오월, 봄 그리고 '꽃편지'

글 변영수 겨레말큰사전 편찬실장 직무대리

햇살이 민들레 꽃씨처럼 흩날리는 오월이다. 별이 내려앉은 것처럼 황홀하게 피어오른 장미, 그 사이로 보이는 수줍은 표정의 이팝나무와 온갖 들꽃이 만화방창이다. 세상의 모퉁이를 돌며 닿는 곳곳 안부를 전하는 봄바람도 애틋한데, 계절의 한복판으로 소용돌이치는 오월은, 실로 꽃의 미로가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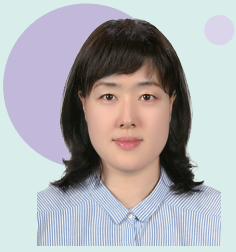
꽃의 '미로'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홀로 멈춰 자신에게 골몰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 아마도 누군가를 향한 감정 때문일 것이다. 기대에 부풀어 만나 사랑하거나 잠시 헤어져서는 그리워하며 어쩌면 이 고백이 끝일까 싶어 마음을 졸이는 그런 얼굴이다.

보통 단어에 '꽃'이 붙으면 상당히 부드러워진다.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는 '꽃길'만 해도 그렇다. 특히 '편지'와 이어지면 그 뜻은 한층 더 깊고 분명해진다. '꽃편지'는 남한에는 그 용례가 많지 않지만, 연변에서는 여러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사랑의 내용이 담긴 연애편지를 뜻하며 '사랑의 꽃편지'와 같은 형태로 쓰인다.

남과 북이 만나 공동회의를 개최한 지 올해로 20주년이다. 오월에, 북과 공동회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꽃편지'를 받고 싶다.

개나리꽃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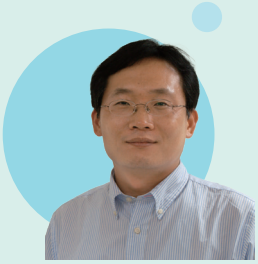
글 이윤경 겨레말큰사전 책임편찬원



보통 3월이 되면 겨우내 가지 끝에 달려 있는 꽃눈이 벌어지며 목련꽃이 핀다. 다음으로 피는 꽃이 우리나라 토박이 식물 개나리이다. 개나리는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노란색의 꽃이 핀다. 잎이 나기 전에 노란 꽃을 피우는 봄철의 나무는 산수유나무나 생강나무의 꽃이 있지만 화사하고 모양이 아름다워 '봄의 별'이라고 불리는 개나리꽃이 단연 으뜸이다.

남북의 사전에서는 '개나리'가 모두 실려 있지만 그 쓰임의 빈도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에서는 '개나리'와 '개나리꽃'을 주로 쓰는데 북에서는 '개나리'보다 '개나리꽃나무'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보인다. 북에서 '개나리'는 꽃잎에 거무스름한 점이 있는 '나리'의 꽃을 이른다. 남에서도 북과 같은 '개나리'가 같은 의미로 사전에 실려 있으나 일반적인 쓰임의 빈도는 남측의 화자가 흔히 쓰는 '개나리'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개나리꽃나무'에 핀 노란 개나리꽃을 볼 수 있듯이 경색된 남북의 만남에도 봄기운이 돌기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만나 '개나리'와 '개나리꽃나무'를 이야기하는 봄날을 기대해 본다.



꽃샘잎샘

글 임보선 겨레말큰사전 편찬전문위원

입춘, 우수가 지나고 경칩에 이르면 산과 들에는 생강나무와 산수유나무의 꽃,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나 벌레들이 깨어 꿈틀거린다. 바야흐로 봄이 찾아온 것이다. 따스한 봄볕을 받으며 순조롭게 꽃과 나무, 개구리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할 때 어김없이 봄을 시샘하는 시련, '꽃샘추위'(이른 봄, 꽃이 필 무렵의 추위)가 찾아온다.

'꽃샘추위'와 유사하나 덜 알려진 우리말로 '잎샘추위'(이른 봄, 잎이 나올 무렵의 추위)가 있다. 그리고 '꽃샘'과 '잎샘'을 합친 말인 '꽃샘잎샘'(이른 봄, 꽃이 피고 잎이 나올 무렵의 추위)도 있다. '꽃샘(추위)', '잎샘(추위)', '꽃샘잎샘'은 어쩌면 봄에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달갑지 않은 불청객일 것이다. 그러나 봄이 약동할 수 있는 것은 이 손님들에 의하여 시련을 겪기 때문이 아닐까.

'꽃샘잎샘'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에게 덜 알려진 아름다운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우리말이라도 언중에게 더 알리고 싶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련이 찾아왔을 때 '꽃샘잎샘'을 이겨내고 활짝 피는 꽃과 우거지는 나뭇잎을 떠올리며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시련이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간다. 그러면서 단단해진다.

아름차다

글 최성규 겨레말큰사전 선임편찬원

이 자리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단어는 '아름차다'이다. 사전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웹)
아름차다 [형용사] ① 힘에 겹다. ② 어떤 일을 한 뒤에 결과가 몹시 좋아서 자랑스러움과 자부심을 갖게 할 만큼 만족스럽다. =보람차다.

《조선말대사전》(2017)
아름차다 [형] ① 팔을 벌려 껴안았을 때 두팔안에 가득하다. (…중략…) ② (맡겨지거나 차례지는 임무나 과업 등이) 힘에 겹다 ‖ 아름찬 임무. ③ 차례지거나 받아안는것이 너무 과분하거나 벅차다. ‖ 아름찬 행복.

아마도 남녘에서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듯하다. 북녘에서는 흔히 쓰는 말로 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남북 공통의 단어이지만, 실제 언어 현실에서는 거의 북녘말에 가까운 셈이다. 이처럼 남녘말인지 북녘말인지 경계를 한 마디로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다.

이 단어의 뜻에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들어있다. 무언가가 가득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은 공통인데, 긍정이 가득하면 보람차다는 뜻이 되고, 부정이 가득하면 힘겹다는 뜻이 된다. 남녘에서 흔히 쓰는 '벅차다'가 이와 비슷하게 두 가지 뜻을 함께 지니고 있다. 앞뒤 흐름을 잘 살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어쩌면 '아름차다'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속 느낌과 멀지 않은 것 같다. 북녘의 말을 사전에 담아내는 일은 당연히 '보람찬' 일이지만, 풍파 많은 남북 관계 속에서 방대한 사전 작업을 실제 하다 보면 '힘겨운' 느낌을 받을 때가 생긴다. 그래도 힘겨움을 견디고 이루어질 《겨레말큰사전》이 보람찬 결과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5 겨레말 소식

제86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2월 13일, 사업회는 제86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사업회 민현식 이사장과 조남호 남측편찬위원장(명지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강출(겨레말큰사전 책임편찬원), 김재용(원광대학교 교수), 도원영(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박덕규(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이관규(고려대학교 교수), 이승하(중앙대학교 교수), 임보선(겨레말큰사전 편찬전문위원), 정인호(대구대학교 교수), 정희원(전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편찬위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록 및 2024년 사업별 추진 실적과 2025년 주요 사업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또 남측편찬위원들은 올해 공동회의 개최 20주년을 맞아 공동회의 중단의 아쉬움과 함께 공동회의 재개 및 《겨레말큰사전》 완성에 대한 바람과 희망 등의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회 홈페이지
해살이

공동회의 개최 20주년 기념 자체 평가회 개최



지난 2월 13일, 사업회는 남측편찬위원과 사업회 임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05년 2월 금강산에서 열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 및 제1차 공동회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는 자체 평가회를 진행했다.

민현식 이사장과 조남호 남측편찬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재일 한글학회 이사장의 〈겨레말큰사전 20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 권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공동회의 중단 이후 힘든 시기 속에서도 사업의 역사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다시 시작할 공동회의를 위해서라도 사전 편찬 자료들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업회 임보선 편찬전문위원, 고대영 편찬3부장, 김강출 책임편찬원은 각각 지난 20년간 개최된 〈남북공동편찬회의〉, 〈남북공동집필회의〉,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등을 정리하고 회고하는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0년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되돌아 보며 공동회의 재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추진할 《겨레말큰사전》 발간과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회 홈페이지
겨레말 사진

제59차 정기 이사회 회의 개최



지난 2월 19일, 사업회는 제59차 정기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현식 사업회 이사장과 권재일(한글학회 이사장), 박병철(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박성준(㈜키인 컨설팅 대표이사), 유병규(HDC현대산업개발 부회장), 유현경(연세대학교 교수), 이상숙(가천대학교 교수), 장소원(서울대학교 교수), 정호성(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이사(이상, 가나다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록 및 사업회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24년 결산서 승인에 관한 건',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건', '규정 개정에 관한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민현식 이사장은 이사진들에게 "올해 사업회가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시대 변화에 적응하며 보다 창의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사진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학술연구용역, 대국민 홍보사업,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행사 등의 사업 추진 현황과 올해 사업 계획을 검토했다. 이사진들은 사업회가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잘 펼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업회 홈페이지
해살이

2025년 겨레말문화학교 봄 학기 정규 강좌



지난 3월 4일, 사업회는 '2025년 겨레말문화학교' 봄 학기 정규 강좌를 개설했다. 사업회는 지난해 봄과 가을 두 번의 정규 강좌와 여름 특별 강좌를 통해 200여 명의 시민과 만나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성과와 남북 교류 경험을 나눈 바 있다. 올해도 정규 강좌 운영을 통해 봄 학기와 가을 학기에 중·고·대학(원)생과 일반 시민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봄 학기는 학교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남북 언어'와 '남북 교류'를 주제로 지난 3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6월까지 경희중학교, 홍익대학교 등 총 7곳에서 강좌를 운영한다.

오는 9월에는 가을 학기 정규 강좌가 개설된다.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사업회 홈페이지 내 겨레말문화학교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학교 동아리, 교과 수업, 평화·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남북 언어문화 학습 자료〉도 사업회 홈페이지에서 상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사업회 홈페이지
겨레말문화학교



겨레말 낱말 풀이는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언어(http://dic.gyeoremal.or.kr)'와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에 수록된 단어로 제작되었습니다.

① 밤과 설탕, 우무를 넣고 졸여 만든 '밤양갱'의 북녘말.

예) 평양밤은 밤가루, 밤과자, {○○○}, … 등을 만드는데 널리 쓰이며….《평양밤》(북)

② 과일을 잘게 썰어서 졸인 음식을 가리키는 북녘말. 남녘에선 '잼'이라고 한다.

예) 다래는 … 질좋은 {○○○}, 단물, 술, 통졸임 등을 만들 수 있다.《머루와 다래》(북)

③ 약재를 달여서 먹는 '탕약'을 뜻하는 북녘말.

예) 두충나무껍질로 약술 또는 {○○○을} 만들어 먹는다.《고혈압증 치료에 좋은 약제》(북)

④ 남녘의 '면접심사(시험)'에 해당하는 북녘말로 2006년 《조선말대사전》에 처음 수록되었다.

예) 대학입학시험을 자신만만하게 끝낸 나에게는 이제 {○○○○만이} 남았다.《나의 가정이야기》(북)

⑤ '인터넷(internet)'의 북녘말로 《조선말대사전》에서 '거의 전세계적규모에서 구축되여있는 컴퓨터망의 집합체'라고 풀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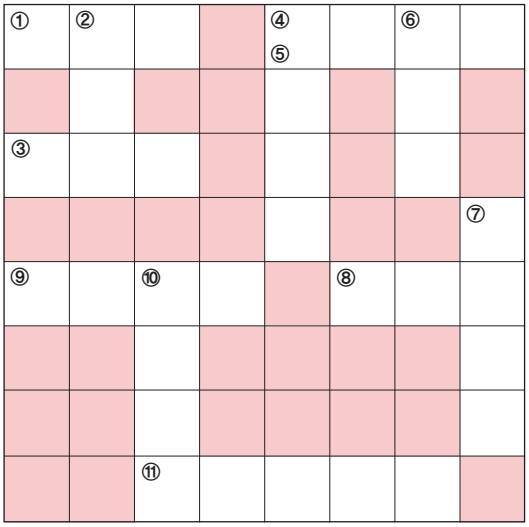
예) {○○○○가} 급속히 발전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해커들이 정보산업부문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새로운 cpu를 개발》(북)

⑥ 둘 이상의 토론자들이 동일한 문제의 서로 다른 견해를 발표하고 청중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의 토론회를 뜻하는 '심포지엄(symposium)'의 북녘 표기.

예) 대학창립 60돐에 즈음한 {국제○○○이} 조직되였다.

⑦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파일이나 자료를 받아오는 '다운로드(download)'의 북녘말로 '자료를 내려 쌓는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예) 전자교과서를 도입하려면 리용자페지에서 교과서일람을 {○○○○합니다}.



⑧ '불가사리'의 북녘말. 이 동물이 3개의 팔을 사용해 앞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에서 붙은 이름이다.

예) 오각별모양을 가진 {○○○} 몇 마리가 엉기엉기 기여들었습니다.《아는체 하다가》(북)

⑨ 남녘에서는 '성형수술'과 운동 기능의 장애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 수술'을 구별하여 쓰는데 북녘에서는 두 수술을 모두 이 단어로 부른다.

예) {○○○○을} 하여 눈에 쌍까풀을 깊숙이 지어놓고….《36년간》(북)

⑩ '주사위'를 북녘에서 달리 이르는 말. 팽이가 돌 듯 바닥에서 구르는 주사위의 모양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2006년 《조선말대사전》에 처음 수록되었다.

예) 말들은 {○○○○에} 나는 점수들만큼씩 유람길을 이어가는데….《람승도놀이》(북)

⑪ 권투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입에 무는 '마우스피스(mouthpiece)'의 북녘말. 북녘에서는 2006년 《조선말대사전》 증보판을 낼 때에 외래어 '마우스피스'를 삭제하고 '이 단어'만 남겨 두었다.

정 답

①밤단묵	②단졸임	③달임약	④인물심사
⑤인터네트	⑥심포즘	⑦내리적재	⑧삼바리
⑨정형수술	⑩수자팽이	⑪이발보호틀	

2025년
함께 만드는 《겨레말》

2025년 겨레말 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수 후기를 선정하여
총 다섯 분께 정해진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참여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공동회의는 올해로 몇 주년을 맞았을까요?
단서! 16쪽 〈기획특집〉에 정답이 숨어 있어요!

이번 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꼭지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여 방법

보내실 곳: gyeoremal@gyeoremal.or.kr
참여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 당첨자에게는 응모한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며 채택된 독자 의견 중 일부는 다음 호에 실립니다.

겨레말 독자 이벤트♥

2024년 가을호 독자 의견

스마트폰의 '화면잠금' 기능을 북녘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정답: 화면열쇠

[심상]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을 만나다
고려인 이주 역사 160주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을 만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네요. 박루바 할머니의 삶의 지혜와 황석영 소설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방문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것 같아요. _박○숙

[기획특집–칼럼1] 남북 전문용어 사전 현황과 통합 방향
남북언어통합사업,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분야가 없겠지만 특히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철도와 교통 관련 언어통합은 미리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통일 이후에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면 실무자간 의사소통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통일 한반도 숙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도 그만큼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용어 통합이야말로 분단된 남북간의 철도를 잇는 것만큼 중차대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_김○현

[기획특집–칼럼2] 남북 법률용어 연구 실제
통일 후 안정적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법 체계 통합 또한 중요한데 현재 남북의 상이한 법 체계와 법 현실에 대한 상호이해 충돌, 법의식과 집행 양식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북 법 통합의 이론 및 방식,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강조해 준 글이라 인상 깊었습니다. _박○우

[남녘말 북녘말] 디지털 통일을 탐구하다
단순 언어와 문자의 개념 속 남북간 이질감 문제를 넘어선, 디지털 기기 속 용어와 자판 배열 차이를 설명한 글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눈앞에 다가온 AI시대에서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통일 담론과 방식을 창안해 나가야 하며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남북한 언어 문제를 발굴하며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_최○수

[겨레말 낱말 풀이]
퀴즈 풀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북녘말을 익힐 수 있어서 유익하고 재미 있었습니다. _이○우

2025 겨레말문화학교 운영 안내

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해 온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남북 언어와 교류 등에 관한 강좌를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 대상

중·고등학교, 대학(원) 및 유관기관 등(10명 이상)

정규 강좌(가을 학기)

신청 기간: 2025년 8월 11일~8월 22일

교육 기간: 2025년 9월 1일~11월 30일

강좌 내용

	강좌명	내용	교육 시간
1	남북 언어와 《겨레말큰사전》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 《겨레말큰사전》 수록 어휘를 통해 살펴본 남북한 어휘 차이의 유형 및 사례	1회, 2시간
2	남북 교류와 《겨레말큰사전》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통해 본 남북 교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	1회, 2시간

※ 자세한 교육 내용은 사업회 홈페이지 내 겨레말문화학교 페이지 참고

수강료 무료

문의: 겨레말문화학교 담당자(02-3275-0816)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